AUG 1 4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67 1981년7월16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July 16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 9184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8월15일 맘모스 체전준비 박차
예산 무려 4만5천달러
체육회, "기금은 이미 확보했다"

오는 8월15일 토론토 램폿·스타디움(1151 킹·스트릿·웨스트)에서 열리는 '81 캐나다 한국인체육대회는 4만5천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맘모스급 호화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최자인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는 15일 "우리는 이미 예산을 확보, 이제는 더 많은 참가자를 위한 인원동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육회가 세운 예산중 2만달러는 운동장 임대료및 당일 경비로, 나머지 2만5천달러는 16일밤 열리는 모국 연예인 초청쇼에 사용된다.

이 쇼에는 인기가수 하춘화, 원로가수 김정구, 고운봉, 명창 이은관, 코메디안 서영춘씨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8·15대회는 축구 결승전, 10km단축마라톤(경기장 20바퀴)을 비롯, 아동부과자 따먹기, 세발자전거 리레이, 엄마경기, 줄다리기, 중고등부를 위한 기마전, 1백미터 경주, 장대 넘어뜨리기, 일반부를 위한 줄다리기, 자전거 리레이, 노년을 위한 눈가리고 통 치기등 17개 경기가 벌어진다.

축구대회를 위한 각팀 주장회의는 17일 하오 한인회관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런던, 키치너, 뱅쿠버, 몬트리얼에서도 8·15대회에 참가한다고 전했다.

이병권 회장은 "3만교민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단결력을 보여, 교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뜻있는 대회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병권 체육회장

이회장은 "이번 일로 사재를 1만달러 이상 소비하지만 보람있는 일이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덧붙였다.

체육회 임원들은 대회준비에 그로키 상태. 임경진 부회장(축구협회장 겸직)은 신경성 신장염및 고혈압으로 16일 상오 웨스리 병원에 입원했다.

강준남 사무총장은 참가팀 점검차 뱅쿠버에 다녀왔고, 곧 위니페과 로스앤젤레스에 출장갈 예정이다.

이회장은 이밖에 황재필, 심재환, 최동주, 장추신, 유용근씨등의 수고가 컸다고 전했다.

한편 체육회는 블루어·스트릿 한인상가에 사무실을 물색중이며 궐석중인 이사장 후임을 위해 이사회가 모일예정이다. 김태선 이사장은 지난달 뱅쿠버로 이주했다.

노태우 보안사령관 예편 정치 무임소장관에 피임

(서울16일) 전대통령과 같은 육사11기생으로 제5공화국 창설에 오른팔 구실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보안사령관이 육군대장으로 진급한지 4일만에 예편, 제2 정치담당 무임소장관으로 임명됐다.

노대장의 예편식은 서부전선○○기지에서 거행됐다.

정부는 30년의 군생활을 끝내는 노대장에게 국가최고훈장인 통일장 훈장을수여했다.

이날 예편식에는 주영복 국방장관을 비롯, 고위장성과 주한미 고위장성, 정부의 고위관리및 사회저명인사들이 참석했다.

노장군은 예편사에서 "나는 온힘을 다해 조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싸웠다. 군복을 벗어도이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대통령과 인척관계로 알려진 노장군은 공수부대장, 청와대 경호실차장, 수도경비사령관 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정확한 이론주의자로 알려진 노태우 장관은 현역시절 결과보다 진행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한국미술 5천년」 워싱톤서 열려

(워싱톤14일=연합)한국미술 5천년을 기념하는 전람회가 354점의 국보급 미술품이 전시된 가운데 워싱톤에서 열렸다.

79년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한국미술 5천년」은 워싱톤 박물관에서 이광표 한국문공부장관, 미국 윌리암·스미스 검찰총장, 유병현 신임 주미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개관됐다.

전람회가 개최되는 스미스·소니안 박물관 연구소장 딜리언·립리박사는 이 전람회를 기념, 만찬회를베풀었다.

전시된 작품중에는 금관, 불상, 민속도등 한국 5천년의 역사를 200년의 미국인이 한눈에 알아볼수있게하는 것들이 있다.

9월30일까지 계속될 이 전람회에서는 영화상영, 강연등이 있고 인간문화재김회진씨의 가면극, 민속무용의 공연도 있다.

태권선수단 파견
월드·게임 24일 개막

월드·게임 I 에 파견되는 캐나다대표 태권도팀 결단식이 23일(목) 하오 7시 토론토쉐라톤·센터(123퀸·스트릿·웨스트)에서 거행된다.

캐나다태권도협회((회장 프랜시스·로이드 하원의장)는 오는 24일부터 8월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임원 5명, 선수 10명을 파견한다.

임원진은 단장 이병권(체육회 캐나다지부장), 부단장 홍성인(런던태권사범), 감독(오타와 태권사범·협회사무총장), 코치 이종수(몬트리얼태권사범), 트레이너 노만·해피안(사니아 태권사범)이며 10개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 10명중 교포는 핀(Fin) 웨이트급 박영호(박주삼사범 장남), 라이트·웨이트급 다니엘·홍(홍성인사범 장남)의 2명이다.

지난 6월13일 몬트리얼에서 열린 태권협회 이사회는 대표팀 구성에 합의하고, 임원진이 선수 참가경비를 전액 부담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진은 선수들의 항공료, 캐나다지정 올림픽 유니폼등 일체를 부담하고 현지 숙박료는 주최측이 맡는다.

이 이사회는 태권도협회 통합후 최초의 모임이었다.

한편 김운용 월드·게임 운영위원회 회장은 15일 "월드·게임은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 스포츠 제전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회"라고 서울서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60개국에서 2천여선수가 참가, 태권도, 뱃민톤, 야구등 비 올림픽경기종목의 경기를 벌인다. 이들중 일부 종목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올림픽·게임에 참가하지는 못했다.

김운용회장은 세계태권도연맹회장, 비올림픽경기연합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릴 예정인 월드·게임은 74년 국제스포츠연맹 총회에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 회의 참가자들은 올림픽이 너무 규모가 크고 경비가 많이 들어 새 경기종목의 추가가사실상 힘든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비 올림픽종목 체육인을 위한 별도 세계대회를 갖기로했다.

프로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국적별로 합숙하는 올림픽과 달리 종목별로 선수들이 합숙한다.

한국은 이대회에 야구, 태권도, 뱃민톤, 볼링등 4개종목에 46명 선수단을 보낸다.

— 사 고 —

발행부수 2배로 증가
무료배부방식 개선 모색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우편파업은 전국의 우편업무를 마비시켜, 주로 우편을 통한 배부방식을 취해오던 본사등 에트닉계 신문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독자·광고주에게도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읍니다.

본사는 이같은 불편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이틀분 을 한번에 인쇄, 식품 나 교민회합 장소, 종교단체를 통 무료배부하고 있 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은 한인계 식품점·식당에서 본지를 얻을 수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용지의 수급상 인쇄부수를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없었으나 10일, 11일자부터는 발행부수를 배로 늘이고 무료배부 방식을 개선하기로했읍니다.

토론토판 교민소식은 파업중 주 3일만 발행됩니다.

파업이 끝나면 연재물의 연속성등을 위해 정기구독자에게는 그간 못보내드린 신문을 전부 발송할 방침입니다. 신문이 필요하신 단체는 본사에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드릴 준비가 돼 있읍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고 배전의 성원과 협조를 앙망합니다.

— 한국일보사 드림 —

남미교포 사기꾼?
피해자들 토론토로 추적

알젠틴 교포 김희영씨등 4명이 40여일전 알젠틴에서 온 김동춘씨(40대)와그의 처 최금숙(약35세)씨를 찾아 토론토에 왔다.

15일 김씨등에 의하면 김동춘씨는 알젠틴 시내 중심가에서 옷가게를 경영하면서 1년간 여러 교포에게서 사채를 얻어쓰고 물품을 외상구입했으며 원주민에게 부도수표를 남발, 약 50만달러의 피해를 입힌후 토론토로 잠적했다는 것이다.

김씨를 "놀랄 정도의 지능적 수법의 사기 범"이라고 규탄한 피해자들은 5년전 알젠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민 온 김씨는 주로 "높은 이자를 줄테니 돈을 꿔달라"는 식의 방법을 썼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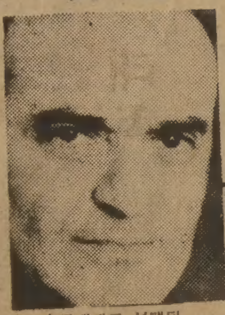
이들은 김씨가 계돈에서 10여만달러, 사채 20여만달러, 물건값 지불금 옷감도매상에 10만달러, 원주민들에게 10만달러등 도합 50만달러를 빚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등은 김동춘씨의 소행으로인해 교민간의 불신, 원주민에 대한 한민족의이미지 손상등 간접적 피해도 컸다고 주장, 본보에 광고를 내는등으로해서 김씨를 찾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알젠틴 주재 한국영사관은 토론토 총영사관에 전문을 보내 김씨의 행방수색을 의뢰했다.

◇피해자들이 찾는 김동춘씨

우편파업 협상 시작



◇중재자로 선택된 알란·골드 판사

(오타와) 16일간 계속된 우편파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퀘벡주 법원 알란·골드 법원장이 새로운 협상중재자로 지명되어 17일부터 우편파업 이후 최초의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23,000명 노조원을 가진 캐나다전국우편노조와 연방정부는 퀘벡주 지방법원장 알란·골드판사를 협상 중재자로 삼는데 합의, 17일 양측은 파업이후 최초의 협상에 들어간다.

골드 판사는 연방정부 인사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선임됐다.

골드 판사는 첫협상회담전에 양측대표들과 만나 각자의 의견을 듣는다.

골드 판사는 이미 퀘벡주정부와 주정부공무원 사이의 노동분규등 노사협상을 성공적으로 중재했었다.

여름휴가를 취소, 계속 열리고 있는 연방의회는 골드 판사의 협상참가를 환영했다.

한편 이 협상의 진행과는 관계 없이 우편노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우편제도의 활용을 막기로 했다. "우편노조원들은 피켓을 전국 공항으로 옮겨 특수우편제도를 막을 것"이라고 페로 우편노조회장은 15일 말했다.

양측이 협상타결에 성공해도 노조측은 협상안 수락여부에 대해 회원들이 가부 투표를 해야 한다. 이에는 약 2~3일이 걸린다.

한국 1게임만 남겨
미국은 4차전서 6:1승리

(서울16일=연합) 15일 서울운동장에서 제2회 한미 대학야구 정기전 4차전에서 미국팀은 한국을 6:1로 눌러 3연패후 첫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미국팀은 한국 선발 양상문투수를 4개의 홈런으로 두들겨 녹다운시켰다.

미국은 에드·보스버그투수가 역투, 한국의 강타선을 1점으로 막고 4개의 더블·플레이를 기록, 호수비를 보였다.

한편 전날 시간제한경기로 순연된 3차전 경기는 이날 오전 속개되어 12회 연장끝에 한국이 이선웅(인하대)의 결승 홈런으로 미국을 6:5로 물리쳤다.

이 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한국은 매직·넘버완을(1승만 필요) 기록하고 있다.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나진」을 해군기지로

(서울13일=연합)모스코 방송은 지난주 "북한 함경북도 나진항과 소련 블라디오스톡및 나호드카항 사이에는 수년 간 선적화물수송, 하역작업에 있어 긴밀한 유대가 있었다"고 보도, 소련이 나진을 태평양진출 해군기지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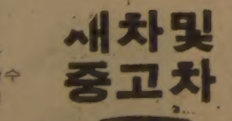
모스코 방송은 또 소련의 극동해안지구와 함경북도간에는 고위 당간부와노동자들간의 교류가 많았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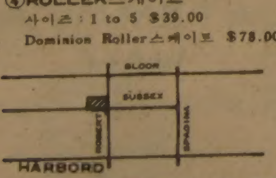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536-1692
(R)245-3539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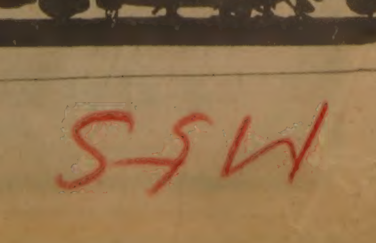
NORTH YORK CHEVROLET OLDSMOBILE GM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운동구점 개업
축구대회·특별세일
①어린이 축구화
가죽 19.99달러
합성가죽 13.99달러
②축구대회 : 단체유니폼 마춤
③각종 트로피및 감사패 주문
④ROLLER스케이트
사이즈 : 1 to 5 $39.00
Dominion Roller스케이트 $78.00


VARSITY스포츠점
252 ROBERT
967-7304 이 건 영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MOBILE DR
TOR. M4A 1H9
☎ : 752-7771

회　장 : 이 형 인
부회장 : 임 철 훈
〃　 : 김 명 정
이사장 : 김 태 진
부이사장 : 전 윤 식

외환은행 개점일 확정
협회간부진 초청 환담

이형인 회장

◇이장우외환은행장

지난 10여연간 토론토사무소를 개설, 운영해 오던 한국 외환은행이 드디어 「캐나다 외환은행」(행장-이장우)이란 명칭으로 캐나다 금융계의수도 토론토 다운타운에있는 세컨드 캐나디안 플레이스(2nd Canadian Place)에서 10월6일부터 문을열고 역사적인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는 지난 9일(목) 외환은행에서 본협회 간부일동(집행부 임원전원과 이사장단)을 럭키스타(중국 식당)으로 초청하여 개점준비에 핏치를 올리고있는상황설명을 겸한 환담의 자리에서 밝혀졌다.

은행측의 말에 의하면10월5일저녁 로 얄욕 호텔에서 성대한 오프닝 리셉션을 갖게되며, 이튿날부터 몬트리얼은행 본점빌딩인 First Canadian Place 바로옆에 신축된 빌딩 2nd Canadian Place 11층에서 영업을 개시 하게된다.

자본금 500백만달러의은행이지만 캐나다 최아터드 뱅크로서 연방은행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정식으로받은 은행이며 담당업무는다른은행과 똑같은 것이며, 예금,적금,송금, 수출입업무, 그리고 대출 업무등을 다룬다.

또한 외환은행은 20만달러 상당의 콤퓨터시설도하게되며, 본국파견 직원으로 행장과 간부직및 현지채용의 직원으로 최대한의 빠르고 친절한 봉사를 모토로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외환은행의 개점이 우리교포들에게 늦은감이 있으나, 그 의의는 중대한 것으로 이곳 캐나다의 금융계는 대단히 폐쇄적이고보수적이어서 외국계 은행의활동을 막아왔었는데 은행법의 개정으로 수개국의은행들이 개설허가를 얻고자 경쟁하던중 최초의 한국계 은행이 오픈하는 것이다.

대개의 외국계 은행들은다만 Whole Sale Bank (홀세일 은행)에 머무르지만 이번 외환은행은 Retail Bank(리테일 은행)을 겸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감한 시도에 타은행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있다고.

장차 불루어 스트릿의한인상가 밀집지역 코리아타운에 지점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장소를 물색중이라 한다.

이날 환담한 내용은 언론기관에서 상세히 보도하고있어 생략하나 특별히본협회와 함께실시하려는 주요은행업무 이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1) 은행은 토론토교민과실협회원들이 이땅에 이민온 역사가 10여년 이상 되지만 그 비지네스의 규모가 초기단계의 영세성을 못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그 비약의 계기를 줄수있는투자의 알선,확장, 콘설탄트등을 안내하여 기반조성을 위한 중계역할을 담당할것이다.

(2) 신문을 통하여 필요한 경제지식분석, 방향등의정보를 제공할것과 가능한대로 실협과 함께 실제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마케팅 자금조달방법, 세금조정등 구체적인 케이스별 연구를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앞날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자리에 참석한임원및 이사들은 외환은행이 개점하게될경우, 범교포적인 후원과 협조로 은행과 교포사회,특히 실협이함께 성장발전해야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즉 우리조국의 국력이그만큼 커졌으므로 이 토론토에 우리의 은행이 들어서는 힘을 갖게된 것이며, 같은언어와 대화를 불편없이 나눌수있는 은행의 존재 가치는 참으로 큰 것이다.

비록 처음에는 불편한점도 있겠으나 서로 인내와 애정으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정성으로 외환은행의 개점을 경축해주고 한세대 한구좌씩 도와주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했다.

과연 눈앞의 불편을 참고앞날의 기꺼움과 자부심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겠다.

「실버운」파업 종료

40여일간 많은 회원스토어의 밀크판매에 막대한지장을 주었던 실버운 밀크회사의 파업이 드디어 지난9일 노사간의 협약이 쌍방의 동의로 끝나게 되었다.

지난5월31일 자정을기해 시작된 스트라익은 본협회 200여 스토어의 우유 판매기능을 마비시켜 왔는데, 그 동안에는 우유딜리버리가 해밀톤,런던, 피터보로등 먼 거리에서 수송되어 왔으므로 주문된 수량에미달되는 것은 물론, 기일이 촉박하여 판매할수 없었던 일등 애로가 한두가지가아니었다.

7월13일(월)부터는 정상가동되는 밀크의 공급이기대되며, 마비되었던 협회와의 연락루트가 재개되는대로 밀린업무의 신속한처리에 만반대비하고 있다.

회원들은 모든 문제를지역 세일스맨과 협의하기를 바라며, 미진한것은협회나 밀크본사로연락하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것을알리는 바이다.

협회연락망

협회는 그동안 준비해온 자체연락망을 활용,우편파업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는 회원들에게 「협회뉴스」가 실린 교포신문을 배달하고 있다.

즉 13일(월)부터 학생운인호군을 임시로 채용하여 회원들 스토어에 신문과환경성에서 보내온 공병처리규정을 알리는 포스터를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는 협회의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급적이면 전 회원에게 협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장시간 수고하는 회원들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뜻과 그 소속감을 깨우쳐 활기를 더으려는 계획임을 주지해주기 바란다.

이번 기회를 통해 비상연락망과 회원과 협회의유대감이 더욱 굳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확정된 딜리버리루우트의 적극활용책을 검토중이나 혹시배달원이 방문하지 못한곳도 있을 것이니 그런 회원들은 전화 연락하면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연락망구성에 참조할 것이다.

문예작품에 많은 응모를

협회는 81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문예작품을 공모중에 있다.

이미 수 개월간 그 응모요령을 광고로 알려온바 있으며, 이달말로 마감하게 될 것이다.

얼마 남지않은 마감일에 앞서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입수된 작품도 많으나 더많은 응모작품이있기를 기대한다.

사실 회원들이 스토어경영에 장시간 매달리다보면 무엇을 집필하여 작품화한다는것은 불가능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또 누구에겐가 남기고싶은 욕구가 일 때 그것을 정리 표현하는 작업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리라.

부디 많은 회원들이 응모하여주기를 당부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숨겨진 재질이 발견되고 정서적으로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아주기를 요망한다.

수기, 시, 꽁트, 수필등 어떤 종류든지 주저하지말고 협회로 송부, 응모해주기를 거듭부탁 드린다.

원고마감 : 7월30일.

공 고
실업자 수당 해당자에 알림

우편파업중 실업보험금 수혜자는 아래주소에 가서 실업수당수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메트로·토론토 캐나다 고용센타(덴파우어)에서 받던 자

〈수표 찾는 곳〉
ROYAL CAN. CURLING CLUB ARENA
131 BROADVIEW AV.(퀸·스트릿 북쪽)
브로드뷰 147및 149번지 사이에 진입로가 있음.
시간 : 월~금 오전9시~오후7시

● 미시사가 고용센타 산하
(165 Dundas Rt. W. 미시사가)

〈수표 찾는 곳〉
미시사가 VALLEY COMMUNITY센터
1275 MISSISSAUGA VALLEY BLVD.
시간 : 월~금 오전9시~오후4시까지

수표를 찾을때, 소셜·인슈어런스·넘버와 다른 증명서를 꼭 지참바랍니다.

※리포트·카드를 가져와야 다음 수표발행이 준비됩니다.

Canada
Employment and Immigration Canada　Emploi et Immigration Canada

---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㉙

팔리·모왓 원작, 현재훈 옮김

먼 거리에서 보면 그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것 같았다. 그런데 잠시후에는 만의 한가운데까지 나와서 한덩어리가 되었다. 나는 망원경을 갖고 있었지만 좀전에 보았던 광경에 열중해서 그것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것같이 느껴졌다.

잠시후 망원경을 통해서 긴 사슴떼를 보니 수없이 열을지어 걸어가는데 먼저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었다.

긴 행열의 여기저기에새끼를 배서 불룩한 배를 실룩거리며 걷는 어미사슴옆에는 햇사슴들이 따라붙고, 숫놈이라고는 전혀 볼수가 없었다. 이들은몽땅 암사슴이었고,모두 새끼를 밴 것들 뿐이다.

이들은 북쪽을 향해서끊임없이 행진해서 평원에도착하면 곧 새끼를 낳을것이다.

맨 앞의 선두가 우리들이있는 강변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만쪽으로는 사슴떼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 동서로 6마일 이나되는 만에는 물결치는듯한 사슴들로 꽉차 있었고, 계속해서 다른떼가 도착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지만 조금도 쉬지않고 또 생각없이 곧게 걸어나와 만의 얼음위를채우며 이미 우리가있는 강변에 도착한 선발대의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오고있었다.

먼지에 덮여 시커먼얼음이 그들이 밟고 지나가자 다시 수정처럼 하얗게 바뀌었다. 그들이 지나는 넓은길은 만의 끝에까지뻗쳐졌고,여러개의 넓은길이나중에는 합쳐져서 얼음전체가 길로변해 버렸다.

사슴떼는 곧 우리앞으로 닥아왔다. 10보,5보 이제는 우리가 비켜야했고, 밟히지 않으려고 손을흔들어 피해야 했다. 이들은 잠시 우리들을 쳐다보고는 관심없다는듯이 한발자국 피해서 걸음걸이를 바꾸지도않고 북쪽으로 곧장 지나쳐 올라갔다.

몇 시간이 겨우 몇분 지나가는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해가 지평선에 기울어질때까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었고, 나는 조금씩 무감각해 지기 시작했다. 생명, 즉 나의생명,프란쯔의생명,더 나아가 내가알고있는 모든 생명자체가 전혀 의미가없는것 같았다. 왜냐하면 여기 헤아릴수없는 크기의생명, 다시말해서 내가 이해할수없는 그런 장광의생명을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의마음은 무감각 해졌고, 생명이란 귀하고 신성하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이 없었던 불모의땅이 이렇게무자비할 정도로 많은 생명으로 포화상태에 빠져있는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윈디리버에서 잡은 12마리의 사슴을 생각해봤다. 그리고 이제는 끔찍하다거나 무섭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이미 기억속에 사라진 잊혀진 이 평원을 건너다가 빠져죽은 이 살아있는 활력소인 사슴에 대하여 측은한 생각도 나지 않았다.

우리가 앉은자리에서 일어났을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우리는 썰매로 조용히 걸어가면서 속이 메스꺼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본 영상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해봤다.

해가 지자마자 얼음은다시얼기 시작했다. 그리고 썰매는 그들의 발자국에부딪쳐 너무 털털거렸기 때문에 나는 썰매뒤를 좇아뛰어왔다.

우리는 여러번 뒤늦게좇아오는 사슴떼들을 가로질러갔고, 매번 프란쯔가 아무리 말려도 개들은 사슴을 몰려고 쫓아가서 썰매를 뒤집어 엎어야만 개들을 세울수가 있었다. 내가 본 모든 광경은 의심할 여지없는 진실 이었다.

그날저녁 나는 집옆의산 계울라가 담배를 피워물고 낮에본 광경을 생각하며오랫동안 앉아있었다. 나는 "사슴을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는바가 전혀 없었으나 또한 내가 전혀 알지못했던 사슴떼를 보았다.

이 사람들과 사슴이 본질적으로 융해되어 사람과 사슴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었고, 우연이기도 했지만 내가 그들을 만나보기전에 이할미우트 사람들의 비밀을 접하게된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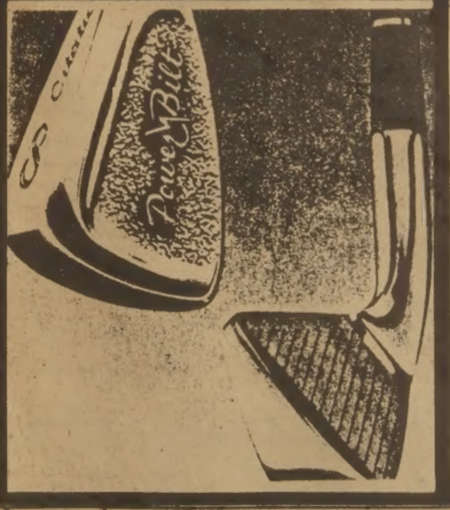
바렌의 사람들과 카리부는 서로 떼어놓을수 없는 상호관계라는 애매한 깨달음이 후에내가 에스키모들을 이해할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초기북극의 탐험이래"대화물"즉 큰 떼거리인 사슴에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에 항상 띄었던 북쪽평원에 살고있는큰 버팔로떼와는 달리 카리브는 아직도 헤뜰어보지' 못한 신비에쌓여 있었다. 다만 이들은 일년중 어떤 기간에그리곤 어디에 갑자기 나타나서 땅을 뒤덮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몇일후에는 없어져 버린다. 어디로 갔느냐고?남쪽 북쪽 혹은 동서쪽으로?그러나 어느방향으로,또는무슨이유때문인지 아무도 모른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이 사슴에관한 잡다한 상반된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볼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 거대한 사슴떼는 여름철에는 광활한바렌의 평원에서 보내고, 겨울철에는 남쪽에있는 북극 고원의 수림속에서 보낸다.

이 두개의 움직임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내가 바렌에서 일년을 지내면서 발견한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는(자세한 것은 뒤에 설명이 될것임)사실이 분명했다.

(계속)



제1회 한인실업인 협회 친선골프대회

장　　소 : Castlemore Country Club
시　　일 : 1981년8월3일 10시
참가자격 : 교민및 회원
참가인원 : 약110명 100
참 가 비 : 30달러(저녁식사 포함)
접 수 처 : 본협회 사무실(752-7771)
준비위원 : 이형인(224-1907)
김태진(249-3740)
차선겸(925-0339)
조정대(282-5632)
백경락(755-7635)

시상(회원)
● Gross Champion(Annual)
● Gross(1등에서 5등)
● Net A조(89이하)-1, 2, 3등
B조(99이하)-1, 2, 3등
C조(100이상)-1, 2, 3등
● Honest Golfer
● Nearest Hole라스베가스 여행권및 숙식1매
● Longest driver
● Hole in one(서울여행사 제공, 세계일주 여행권)

시상(비회원)
● Gross Champion(Annual)
● Gross(1등에서 5등)
● Net A조(99이하)-1, 2, 3등
B조(100이상)-1, 2, 3등
● Nearest Hole라스베가스 여행권및 숙식 1매
● Longest driver
● Hole in one(서울여행사 제공 세계일주 여행권)

경　품
● 1등에서 10등까지
※경품내용및 기증자 명단은 추후발표

※기타 각 도매상및 제조업체에서 보내온 많은 상품이 있아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보자도 환영)

주최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원 문예작품 공모

본 협회에서는 1981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회원여러분의 문예작품을 모집하여 우수작을 시상코자 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십을 바랍니다.

—아　래—

응모마감 : 1981년 7월30일
작　　품 : 수기, 시, 수필, 꽁트등 원고제한 없음.
심사위원 : 추후 발표함
시　　상 : 1등 상패및 부상($500현금)
2〃 〃 ($200현금)
3〃 〃 ($100현금)
원고제출처 : O.K.B.A.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원고 반환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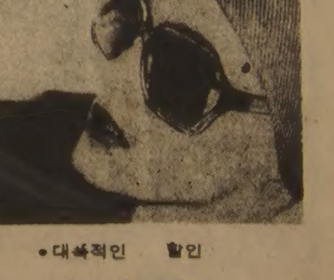
온타리오 한인실업인 협회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한국일보
우리의消息은韓全한報道

임시國會 20일召集

3黨總務합의、會期 5~6일 예정

아세안巡訪결과 청취
教育公務員法개정案등 처리도

民正 民韓 국민등 3黨총무들은 오는 20일부터 5~6일간의 會期로 제108회 임시국회를 열어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巡訪결과에 대한 정부측보고를 듣기로 했다. 民正黨의 李鍾贊, 民韓黨의 高在淸, 국민당의 李東鎭총무는 13일상·하오 두차례에걸쳐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제108회 임시국회를 5~6일간 예정으로 소집하되 의제는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巡訪결과와 기타 계류案件(교육공무원법개정안과 한국、말레이지아 二重課稅방지협정비준동의안)으로결정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全대통령의 아세안巡訪결과에대해 本會議에서 對정부질문을 벌이느냐 아니면 각常委에서 對정부질의를 할것인가를두고 각 정당간에 의견이 엇갈려 14일 하오2시 다시 총무회담을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民正黨과 국민당측은 본회의에서 全대통령의 아세안巡訪성과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듣고 관계常任委를 열어 외교상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한편 일반常任委는 의제를정해 對정부질문을 할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民韓黨측은 정부측 보고에 이어 본회의에서 對정부질문을 벌여야하며 아세안巡訪에 대한 對정부질문이 곤란할경우 國政전반에 대한 정부측보고를듣고 對정부질문을 벌일것을 주장했다.

이날회담후 民正의 李총무는 대통령의 아세안巡訪과 관련있는 외무、국방、경과、상공、건설위등 5개常任委를 비공개로열어 아세안巡訪관련문제를 질의、답변하고 그밖의 常委는 의제를 별도로 정한다음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議事日程으로 ▲20일 開會 ▲21일 본회의에서 全대통령 아세안巡訪관계 보고청취 ▲22·23일 常任委활동 ▲24일 본회의에서 교육공무원法개정안과 韓、말레이지아 二重課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처리후 폐회등 5일간의 日程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民韓黨측은 ▲21일 본회의보고청취 ▲22일 對정부질문 ▲23·24일 常委활동 ▲25일 본회의에서 계류안건처리후 閉會등 6일간의일정을 주장했다.

◇民正、民韓、국민당3黨총무들이 13일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있다。左로부터 高在淸民韓、李鍾贊民正、李東鎭국민당총무。

丁議長출국 美·콜롬비아訪問

丁來赫 국회의장은 콜롬비아와 미국을방문하기위해 12일밤9시30분 KAL편으로 출국했다.

丁의장은 18일까지 콜롬비아를공식방문하고 19일부터 8월7일까지 미국을방문한다.

丁의장은 이번 양국방문에서 全斗煥 대통령의 1·12 제의및 6·5南北제의등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설명하고 이에대한 이해와협조를촉구할 예정이다.

丁의장은 訪美中 조지·부시부통령、上院의 스트롬·더몬드의장대리와 찰즈·퍼시 외교위원장、下院의 토머스·오닐의장 클레먼트·재블로키 下院외교위원장、윌리엄·패트릭·룰라크국무차관등과만나 韓·美양국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강화문제를 협의한다.

丁의장의 이번 방문에는 柳璿賢(民正) 林鍾基(民韓) 趙炳鳳(국민) 朴定洙의원(民政)등이 수행했다.

「必要」·「體面」의 調和

伏中단기國會…形式운영 그칠듯

해설

與野가 豫想을 뒤엎고(?) 伏中 短期국회를 열기로 한데는「必要」와「體面」이 갈려있다。

與野는 앞서 5월국회가끝나면서 7월국회召集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면서도 이의실천여부를두고 지리한 실랑이를 벌여왔다.

우선 民正黨은『타당한 議題가 있을경우 언제든지 열수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현재로서는 국회를 열만한 의제도없고 이유가없는 것같다』고 일단부정적인 태도를 固守해왔으며 국민당도 일부에서는 召集論이 일었지만 金鍾哲총재등 공식기구의 의견은 懷疑論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에반해 民韓黨은 與野총무들간의 합의대로『무슨일이 있어도 소집해야한다』는 積極論을 고집했고 議政同友會는 17명의 소속의원들이 전원 소집요구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民正黨의 無用論과 民韓黨의 有用論은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巡訪기간중에 심심찮게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民正黨의 無用論은『임시국회를 소집해야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全대통령의 아세안순방결과 보고인데 그것은 外務委 소집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으며 民韓黨의 有用論은「순방결과 뿐아니라 그외의 의제도 90여개나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民正黨측은「국회를 열어라」「열지못하겠다」고 팽팽히 맞섰던 과거 與野의 싸움이 새시대에 再現되는것을 경계했고 국회召集是非자체가 정치이슈化하는것을 기피해왔다.

民正黨으로서는 국회를 무조건 여는것만이 能事라고 하루 쟁을해온 舊時代의 野黨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재현되는것이나라고 눈살을 찌푸려온것이다。

그러나 民韓黨으로서는 새시대야말로 民正黨이 公言했듯이 수시로열어 국민의 궁금한점을 추궁하고 밝혀내야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그동안 法司 國防을 제외한 10개常委가 열려 그때마다 생긴 문제점들을 거의 모두 다루었고 丁來赫국회의장을 비롯한 여러의원들이 해외여행에 오르고 때가마침 휴가철이라는점등 임시국회召集의 긴급성과는 거리가 먼것들이었다.

그러나 民正黨은「그렇다고 무조건 소집을 반대하는것도 舊시대의유물이라는 前提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열수있다」는 대원칙을 내세웠던것이다.

이러한 前提에서 民正黨은 全대통령의 귀국후 태도를 바꾸어 성공적인 순방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뜻에서 外務委가 아닌 本會議에서 보고받는다는 線으로양보를 함으로써 民韓黨의 체면을 살려준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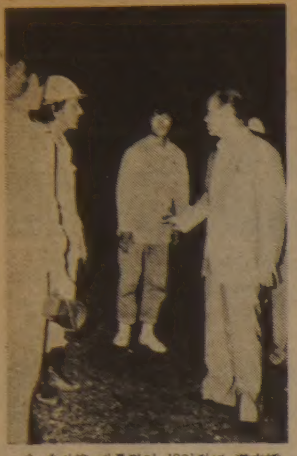
民韓黨으로서는 국회소집을 당무회의와 확대간부회의에서 黨命으로 재확인할 정도로 黨執行部에대한 화살을 겨눌 가능성이 짙었다.

어쨌든 與野가 必要와 體面으로 이뤄진 이번국회는 당면이슈를 이미 소관常委에서 다루었다 기간도 短期이며 다른의제의 범위도 대체로 아세안巡訪과 계류事件에 局限되어있어 정기국회전에 中間국회를 한번열었다는 記錄的의미에서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운영될여지도없지않다. 【黃明雄기자】

多目的댐 더많이建設 水害 永久的방지토록

全대통령 潜水橋공사 被害없게 警戒를

災害對策본부 視察



◇全斗煥 대통령이 12일저녁 潜水橋 2층교량건설공사현장에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일요일인 12일 저녁 예고없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들러 전국의 水害상황을 보고 받고 이어 漢江의 潜水橋2층 교량건설공사현장을 시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저녁7시50분 정부종합청사 16층에있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들러 숙직근무중인 관계관으로 부터 전국의 降雨현황과 水害상황등을 보고받은뒤 배석한 金周南건설장관등 관계관에게『연례행사와 같은 막대한 水害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전국의 주요江에 多目的댐을 많이만들어 水害를 막도록하라』고 당부하고『일정한 水深을 유지하도록 해 선박등 주요 물자를 배로 수송할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앞서 중앙재해대책본부 숙직관계관은 이날현재 水害가 심한곳은 忠南삽교천일대의 禮唐평야、洪城、保寧지구와 全南일부지역이나 더이상 비가내리지 않으면 물이 빠져 큰피해는 없을것같다고 全대통령에게 보고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저녁 8시30분 潜水橋2층 교량건설 공사현장을 찾아 숙직근무중인 공사관계자들에게『水害로공사에 지장이없도록 경계를 철저히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1시간34분에걸친 시찰을끝내고 밤9시14분 청와대로 돌아왔다.

아세안巡訪결과 外交使節에설명

정부는 13일하오 서울에주재하는 41개국駐韓외교사절들을 외무부로불러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巡訪의의와 결과에 관해 1시간동안 설명했다.

孔魯明 외무부 정무次官補는 이날 이번巡訪을 계기로 성숙된 東北亞및 東南亞지역의 安保유대강화에 관해 韓·아세안공동성명을 토대로 1시간동안 설명했다。

美미사일 유럽配置 佛·西獨 頂上 합의

미테랑·슈미트會談

【본12日UPI=聯】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슈미트 서독수상은 12일 본에서 非공식정상회담을갖고 美중거리미사일의 유럽배치필요성에 완전 합의했다고 미테랑 대통령대변인이 밝혔다.

피에르·보렐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서독정상회담차 처음으로 서독을 방문한 미테랑 대통령이 2시간에 걸친 슈미트수상과의 회담에서 서방측이 對蘇 군사균형확보를 위해서는 재무장을 해야하며 그렇게 해야만 소련과의 중거리미사일 제한협상이 착실하게 진전될수 있을것임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보렐대변인은 東西관계와 유럽안보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진 미테랑—슈미트회담에서 美중거리미사일의 유럽배치문제에 관해 아무런 이견도 없었다고 말하고 슈미트수상이 오는가을 프랑스를 방문해달라는 미테랑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3면

물에 잠긴 3개마을

◇12일상오9시께 충남禮山郡삽교천제방이 붕괴되면서 新岩面中禮里등 3개마을이 침수되었다。하천제방이 무너지자 도도한 흙탕물줄기가 마을로 휩쓸고들어와 1백30여채의 가옥들은 불과1시간만에 창문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13일정오께까지도 물이 빠지지않고있다. 【本社세스나機上=韓隆기자찍음·金海日항공부차장조종】

대통령警護室長 張世東장군任命

◇張世東실장

全斗煥 대통령은 13일 대통령警護室長에 張世東 장군을 임명했다. 鄭東鎬 前경호실장은 이날자로 軍에 복귀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鄭전임 경호실장과 張신임경호실장으로부터 離·就任 신고를 받고 鄭전임경호실장에게 黃條勤政훈장을 주었다.

◇張경호실장약력 ▲서울출신 45세 ▲陸士卒(16期) ▲공수특전단근무 ▲수도경비司근무 ▲대통령경호실근무 ▲공수특전여단장 ★얼굴2面

蘇外交官3명 追放

말聯、間諜혐의 24시간내出國令

【콸라룸푸르13日UPI=聯】말레이지아정부는 13일 스파이활동을 벌인혐의로 콸라룸푸르주재 소련대사관직원 3명에 대해 24시간이내에 출국하도록 추방령을 내렸다.

말레이지아 외무성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V·P·로마노크、G·I·스테파노크、L·하미도우리네등 3명의 소련외교관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僑民신문 編輯者 서울招請

李文公、가을에 海外특파원硏修도

【뉴욕12日=金泰雄특파원】李光杓 문공부장관은 12일 상오 해외교민언론의 중요성을 감안、교민신문 편집책임자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발전한 조국의모습을 보여줄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미술 5천년전의 마지막이되는 워싱턴전을 개막하기위해 11일하오 뉴욕에 도착한 李장관은 또 한국언론연구원이 주관한 견습기자훈련이 끝나는대로 이번가을에 해외특파원들도 연수를 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李장관은 12일하오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열리고있는 한국현대회화전을 시찰했다.

社会漫評

自律化…

地平線

새소리에 눈이 떠서 호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던 때와 달라 지금은 시간이 곧 돈이다. 그러나 작년5월 국제노동연합이 발표한 것을 보면「시간」의 값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자면 쌀1kg을 사기위해 한국의 기계공업노동자들은 10분30초、일본은 23분30초、미국은 4분30초를 일해야한다. 그러나 셔츠한벌 사기위해 한국의 철강노동자는 스위스보다 3배를 일해야한다.

▼시간이 돈이라는 것은 택시요금을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합쳐서 따지는 나라에서 더 실감하게 된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째깍째깍 돌아가는 미터기의 시계소리가 곧 곰찍스런「돈」을 뜻하기 때문이다. 택시 미터기에 시계까지 달아「시간·거리 병산제」로 따지는 방식을 大邱에서부터 시험할 것이라니까「시간의 공포」를 우리도 곧 체험하게 될것같다.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는 택시운전사들이 회사입금액과 일당을 벌기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한국일보 12일자 11면). 속도제한이나 차선을 지키지 않는 난폭운전, 또는 합승을 없애고 따라서 교통사고율도 줄것이라는 계산이다. 아직은「시험」이라는 딱지가 붙어있으니까 섣부른 결론은 내릴수 없지만 차주·운전사·손님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것은 확실하다.

▼우선 거리에다「시간」을 보태는 만큼 차주로서는 수입이 는다는 것을 뜻한다. 운전사로서도 도심에서 길이 막혔다고 짜증을 부리지않고 느긋이 콧노래를 부를수 있을지 모른다. 째깍대는 미터기의 시계소리가 곧 돈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심지의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면 사람들은 돈지갑을 한번 더 들여다 볼것이다.

▼결국 시간·거리 병산제는 가까운 거리를 타는 도심의 손님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당국의 계산대로 거리의 교통질서를 가져올 것인가는 장담할수 없을것 같다. 첫째 차주의 수입이 느는만큼 운전사에게 충분한 월급을 주지않는다면「난폭운전」은 여전히 계속될것이다. 월급을 얼마나 줄것이냐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둘째로 택시요금의 실질적인 인상이 시민의 교통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를 생각해야된다. 작년의 경우 택시는 서울에서 교통인구의 18.4%, 釜山에서는 15.8%를 담당했다. 세계적으로 높은 이 택시 이용률을 낮추기위해서는 그만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보다 대중적인 교통기관의 용량을 늘려야된다. 택시와 어느 정도 보조관계에있는 좌석버스의 서비스개선도 생각해야 될대목이다. 또한 拉算制로 값을 올리는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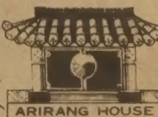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10
은: 온스당 US 8.31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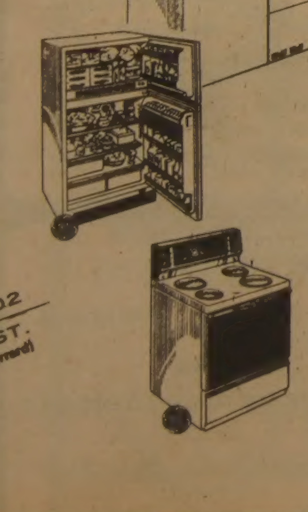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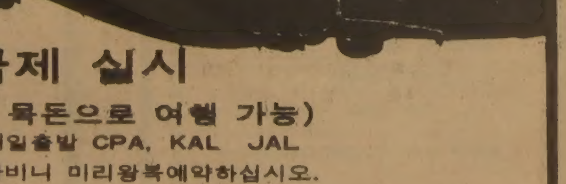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번역·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 759-9505(5시이후)

偉信電器地毡公司
WILSON APPLIANCES & HOME FURNISHINGS
BUY NOW & SAVE!
각종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모든전자제품 특별세일.
593-1801, 1802
83 GERRARD ST.
(LuCliff Place · Bay & Gerrard)



IATA



월부적금제 실시
(푼돈 모아 목돈으로 여행 가능)
●서울단체 매일출발 CPA, KAL JAL
여름철은 붐비니 미리왕복예약하십시오.
●이민및 방문초청상담, 초청장 작성
●동남아 각처 단체요금
●월부및 각종 크레딧 카드취급
●저렴한 국내선 SKYBUS및 SEAT SALE
※ 모국방문산업시찰단모집 : 9월27일 출발
(3박4일 산업시찰 포함)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IL4
김창범 536-2155·2156 (R) 429-7580

英폭동 20개都市로 번져

黑·白人 청년들 파괴행위 계속

警察 5명부상…700명체포 / 불량배끼리 流血충돌도

【런던13日AFP=聯合】북부의 요크셔州와 남부의 햄프셔州등 전국의 20개도시로 비화된 영국인종폭동은 10일째인 12일밤에도 계속됐다。이날 흑백청년들은 각계지도자들의 진정호소를 무시한채 런던과 중부 5개도시에서 격렬한 파괴행위를 벌였다。

이날의 폭동사태는 경찰서장과 종교지도자및 정치인들이 지난주부터 전국을 휩쓸어온 도시폭동사태를 종식시켜줄것을 호소한뒤 일어났다。

최악의 폭동은 중부레이세스터시에서 일어났는데 5백여명의 폭도들은 화염병과 돌멩이、빈병들을 마구 집어던져 최소한 경찰관 5명이 부상했다。사태가 악화되자 1백60㎞떨어진 런던과 인근도시에서 6백여명의 경찰이 이곳 경찰을 지원키위해 도착했다。

또 커벤트리와 울버햄턴에서는 적대관계에 있는 청년불량배들이 유혈충돌을 벌였고 버밍엄에서는 파출소들에 화염병이 날아들기도 했다。

머비에서도 2백여명의 유색인 청년들이 주요상가에 모여 폭동을 벌였는데 한경찰대변인은 13일 새벽까지도 청년들이 거리를 휩쓸며 몰려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런던에서는 청년들이 병과 벽돌을 경찰에 던져댔으며 이어 소방서 2개소를 습격하고 상점을 약탈했으나 경찰은 사태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지난12일까지 20개도시에서 벌어진 폭동으로 체포된 사람은 런던의 1백60명을 포함、7백명선을 넘었다。

경찰당국은 폭동이 요크셔、햄프셔등지로 확산됐음에도 불구、폭동의 열기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대처수상과 윌리엄·화이틀로内相이 13일중으로 하원에서 폭력시위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관장할 특별법원의 구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대다수의 폭동이 빚어지고있는 대도시에서 「모방」의 성격을 띤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상은 이같은 모방적성격의 폭동을 용납하지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고있다고 덧붙였다。

화이틀로内相은 12일 TV회견을 통해 정부의 당면한 과제는 경찰의 폭동진압능력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히고 「부상자수가 너무 많아졌다。경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고 강조했다。

◇西獨방문중인 미테랑 西獨을 방문중인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헬무트·슈미트 西獨수상과의정상회담을위해 12일 슈미트수상집무실에도착, 의장대의사열을받고있다。【본12日UPI電送=聯合】

캄國際會議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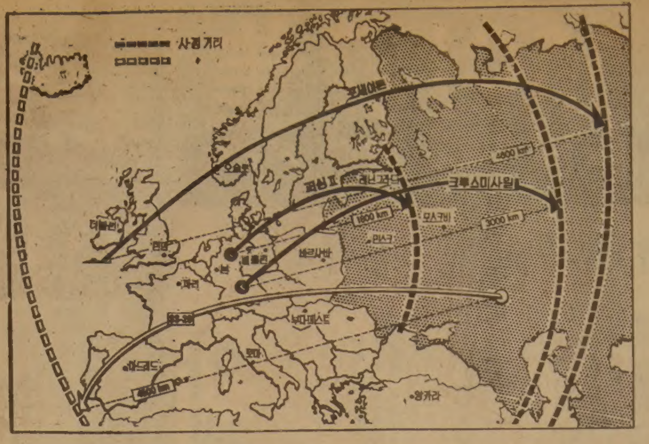
아세안提議 平和案토의

유엔本部 75國代表 참석

【유엔本部12日AP=聯合】캄보디아분쟁의 평화적해결책을 모색하기위한 5일간의 국제회의가 13일 75개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본부에서 개막된다。

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의 개막연설로 막을 올리게되는 이번 회의는 빌리발트·파르 오스트리아외상을 의장으로선출한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5개국이제의한▲유엔軍의캄보디아파견▲캄보디아주둔 베트남軍철수및감시 ▲캄보디아각파벌의 무장해제▲새로운 정부구성을위한 총선감독등 캄보디아문제의 평화적해결방안에 관한 토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회의에는 특히 주요당사국인 소련과 베트남이 불참했으나 미국대표인 잔·커크패트릭유엔주재대사는『아세안의 관심과 선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혀 캄보디아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非공산아세안의 결의에 찬성의 뜻을표했다。



◇美·蘇兩極의 核배치상황

미사일엔 미사일로 맞선다

蘇SS20 스페인도 射程圈 / 經協도 對美戰略으로 홍정

佛·西獨배치合意…美의 苦悶 덜어줘 / 美의 「對蘇軍縮협상」서두르란 압력내포

인사이드

미테랑의 서독방문 결과는 유럽내 戰域核배치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국내 반대여론에 부딪쳐 고전하던 슈미트수상에 좋은 지원사격이 되었다。공산당 각료를 입각시킨이후 프랑스의 對外정책에 의심을 품던 미국도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다。

서방은 지난79년11월 소련이 SS20 미사일을 동구에 배치한데 대응하기 위해 서독、영국、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등 나토가맹 5개국에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하기로 일단 결정했지만 각국의 구체적 할당문제를놓고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있다。

각국별 할당량을보면 서독 2백4、영국 1백60、이탈리아 1백12、벨기에 48、네덜란드 48기로 모두 5백72기이다。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자국내 중거리미사일배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서독、벨기에、네덜란드에서는 국내문제때문에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있다。

네덜란드의경우 지난5월말 국민투표에서 앙드레아스·반·아그트수상이 이끄는중도우익연합이 다수당 확보에 실패、핵배치에 반대하고있는 노동당이나 중도좌파와협상을 하지않을수 없게돼 핵배치문제를 포기하거나 지연시킬 처지에 놓여있다。

벨기에도 아직까지 최종결정을 유보하고 있으며 서독에서는 집권社民黨안에서조차 전역핵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있어 슈미트수상과 겐셔외상이 사임하겠다고 위협한 일이있다。

이렇게 각국이 핵배치결정을 지연한다해서 당장 나토의 戰域核배치계획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건 아니다。그러나 결정의 지연으로 반핵여론이 더욱 거세질가능성이 있다。

나토의 핵배치계획은 83년부터 시작한다해도 86년까지 절반을배치하고 나머지는 89년까지 배치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戰域核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은 서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미국은 소련의 군사우위에 대항하기위해서는 우선 전역핵을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유럽은 핵무기가 유럽에 배치되면 긴장이 더욱 고조될것을 우려하면서 미국에대해 소련과의 군축협상을 먼저 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레이건美대통령은 유럽측의 끈질긴 先협상요구에대해 지난5월 81년말까지 소련과 중거리미사일감축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측은 레이건美대통령이 군축협상보다는 군비증강쪽에 對蘇전략의 중점을 두고있다고 믿고 확실한 협상시간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있다。

미국은 이에대해 소련이 동구에 배치한 SS미사일이 5일에 한개꼴로 증강되고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히 배치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소련SS20미사일도 유럽이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키로 결정했던 79년11월에는 1백기정도로 평가되었으나 지금은 2백20~2백50기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유럽군사전문가들은 소련이 SS20미사일을 앞으로3백~4백기까지 증강할 것으로 보고있다。

미테랑 대통령은 대통령취임후 제일먼저 파리로 날아온 슈미트수상과 5월24일 첫회담을 갖고 양국관계강화및 유럽의 군사력균형 유지를위한 노력에 합의한바 있다。

오는 20일부터열리는 오타와서방경제정상회담을앞두고 다시만난 미테랑과 슈미트는 일단 유럽핵배치문제에 합의하여 미국을 안심시켰다。

獨·佛간의 합의내용은 오타와경제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대해 對蘇군축협상을 서두르라는 압력의 수단이될 것과 함께 美·西歐 경협문제에서 보다많은 몫을 거둘수있는 보다강력한 對美전략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朴永勳기자】

波、오늘 특별全黨大會 개막

罷業위협속 社會主義 장래결정

「中道路線」에 强穩대립예상

【바르샤바12日UPI特電=聯合】노동자들의 파업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폴란드사회주의개혁의 장래를 결정할 역사적인 제9차 폴란드공산당특별전당대회가 14일 개막된다。

폴란드의 민주개혁은 소련블록 최초의 자유노조인 「솔리다리노스크」를 탄생시킨 작년여름의 노조쟁의 결과로서 같은해 9월 폴란드공식정책의 하나로 채택됐었다。

1천9백64명의 전국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특별전당대회에서는 당규약개정을 비롯 개혁정책의 계속추진、폴란드 경제및 사회위기의 정치적해결과 사회불안의 주기적 반복을 피하기위한 대책등을 제도화하는 문제가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폴란드공산당제1서기 스타니스와프·카니아는 폴란드가 나아갈 길이 이같은 방법외에는 없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카니아를 비롯한 폴란드공산당지도자들은 지난달의 제11차 폴란드공산당 중앙위전체회의에서채택된 이른바「질서있는 개혁」이라는 중도노선 개혁계획의추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는데 폴란드공산당 중앙위는 지난달의 전체회의에서 당의 중심적역할을 비롯한 사회주의원칙의 계속유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波 共産黨 임시 黨大會서 改革政策 壓倒的승인예상

【바르샤바13日UPI=聯合】폴란드공산당은 14일부터 시작될 임시 黨대회에서 黨제1서기 스타니스와프·카니아가 주도하는 「개혁」정책을 압도적으로 승인할것이며 폴란드사태해결을위해 무력이 동원될 경우 3차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폴란드공산당의 한 고위간부가 13일 말했다。

폴란드기자협회 회장이며 당원인 스테판·브라트코프스키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 1천9백64명의 대의원중 1천7백명이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당대회에서 카니아와 그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게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당내소수 강경분자들이 불화를 조장할 만반의태세를 갖춘가운데 권력재탈취를 시도할가능성이 있다고말했다。

日 核搬入허용 報道논평 / 비밀覺書교환설 否認

【東京11日 共同=聯合】일본외무성소식통들은 11일 지난60년중 미·일양국간에 미핵무기의 일본영내반입을 허용하는 비밀각서가 교환됐을지도 모른다는 보도와 아울러 이같은 비밀각서의 존재를부인했다。

이 소식통들은 미국이 미·일안보조약개정을 위한 대일협상과정에서 미핵무기의 일본내 반입에 비밀리에 동의토록 일본을 설득하려 노력했다는 워싱턴발 보도를 부인하면서 그러나 미군부당국이 이협상중 그들의 갖가지 견해와 희망을 피력했을[illegible]실일지 모른다고 논평했다。

소식통들은 또 중요한 문제는 미·일양국이 궁극적으로 합의한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며 회담에서 거론된 문제들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日외무성은 이문서들과 관련한 정보를 미국에 요청할 의도를 갖고있지않다고덧붙였다。

北아일랜드 緊張 連4일째

벨파스트등서 英軍·警察被襲

【벨파스트12日特電=聯合】지난주 에이레공화군(IRA)소속 게릴라 조·맥도넬의 옥중단식사망에 이어 재연된 북아일랜드의 긴장사태는 12일 벨파스트등의 新敎徒거주지역에서 영국군및 경찰들이 저격수들로부터 기습사격을 받는등 연4일째 계속됐다。

경찰은 맥도널의 장례식이후 구교도들과 경찰간에 폭동사태가 빚어진데 이어 12일새벽 벨파스트의 수개지역에서 저격수들이 경찰과 영국군을 공격했으며 벨파스트중심부에서는 IRA의 대규모탄약창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로인해 경찰이나 영국군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없었다。

또한 런던데리에서는 IRA 동조자들이 사제폭탄을 경찰에 투척하고 이에맞서 경찰이 고무총탄을 발사했으며 벨파스트서쪽 64㎞ 포메로이에서도 폭동이 일어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IRA 또 斷食 死亡 허슨

【벨파스트13日AP=聯合】벨파스트의 메이즈감옥에서 복역중이던 IRA(에이레공화군) 마틴·허슨(27)이 54일간의 단식끝에 13일새벽사망했다。

印·파키스탄軍 또 銃擊戰

파軍 5명 射殺

【뉴델리12日UPI=聯合】인도군은 11일 파키스탄과 접경한 인도북부 캐시미르경지역에서 파키스탄군과 총격전을 벌여 최소한 5명의 파키스탄군을 사살했다고 인도의 PTI통신이 12일 보도했다。

PTI통신은 인도군 소식통을 인용、파키스탄군이 푼치지구에 배치된 인도군에 아무런 까닭도없이 총격을 가해와 인도군이 반격에나서 파키스탄군 5명을 사살했다고 전했는데 인도군사상자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늘의 小史 <14일>

- ▲佛 혁명기념일 (1789)
- ▲李儁烈士 헤이그서 憤死 (1907)
- ▲볼리비아 大韓民國 승인 (1949)
- ▲美·英·佛 외상회의, 한국휴전후 중공 재침시 공동제재 합의 (1953)
- ▲이라크王 파이잘2세 피살 (1958)

메아리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제노바 항에 정박중이던 일본선적의 유조선이 12일 벼락을 맞아 이배에 타고있던 우리선원5명과 또 다른나라 선원 1명등 6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벼락은 대체로 번개를 수반하는데 우리나라서는 장마철에 자주 볼수가 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서 뇌성과 벽력이 치면 옛날에는 집안의 유기들을 뜰가운데 내어 놓고 방 한가운데에서 이불을 쓴채 숨을 죽이며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꼼짝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남에게 겁을 주고자 할때나 또는 저주를 하는 말에 벼락을 맞아 죽으라는 것이 있을만큼 대체로 공포의 대상이되어왔다。

그런데 벼락은 지금까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분류되어 왔다. 대기의 불안정으로 일어나는 氣團雷, 전선에 연해서 일어나는 前線雷, 산악지대에서 일어나는 地形雷등으로 크게 나뉜다。

지난번 아이거북벽에서 있었던 낙뢰사고로 우리 산악인들을 죽게한것도 지형뢰의 소행이었던 것이다。

벼 락

이처럼 사나운 벼락을 피하려면 야외에 있을때는 숲속으로 피해야 하며 큰 나무그늘에서 머물면 2차적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또 쇠붙이에 가까이 있거나 그것을 몸에 지니는 것도 삼가야 한다. 특히 바다나 호수에서 헤엄을 치다가 벼락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물으로 올라오는 것이 급선무다.

집안에 있어서도 전화선이나 전기기구 상하수도에서 되도록이면 떨어져 있는것이 안심스럽고 자동차나 기차의 차실안은 안전하다. 그것은 차체의 금속이 전기적인 영향을 가로막아서 그 내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배에 탔을 때에는 선실안에 있으면 별다른 탈이 없는것으로되어있는데 우리선원들이 한꺼번에 5명이나 배에 떨어진 벼락으로 사망했다니 선실에 있지않고 갑판에 있다가 아깝게 변을 당한듯 하다。

거듭되는 벼락피해 소식으로 벼락이 치는날이면 이제는 어디가 안전한지 지형지물부터 먼저 알아차려야 하겠다。

海外토픽

"情事 자주 갖기를"

★英敎界 皇太子커플에忠告

『될수록 자주情事를 즐기고 언쟁을 했다면 침실에 들기전에 반드시 화해하세요』

이는 영국의 新·舊敎지도자들이 12일 결혼준비에 바쁜 찰즈황태자와 약혼녀 다이애너양에게 귀띔한 충고의말。

기독교계 월간 패밀리지는 이날 聖公會施療院長인 프랭크·쿠크신부등 몇명의종교지도자들이 찰즈황태자에게준 「행복한 부부생활」에 관한 충고를 공개했다。

편집장인 앤·타운센드여사는 종교계인사들이보내온서한을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양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쿠크신부는『될수록 자주정사를 즐기라』고 권고하면서『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도널드·코건 前캔터베리대주교는『침실에 들기전에는 반드시 언쟁을 끝내라』면서『날이 지새도록 화를 풀지않는것은 禁物』이라고했다。

감리교단의 케네드·그리트감독은『서로를 원해 시간을 내는 애틋함을 지녀야한다』고 주지시켰으며 요크셔 감리교단의 메이비드·왓슨목사는 상대방의 개성을 어디까지나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타운센드 편집장은 종교지도자들이 찰즈황태자의 결혼을 맞아 제시한 이같은 제언들은 이혼율이 급증하고있는 현실에 비춰볼때 매우시기적절한 충고들이라고 논평했다。【런던=AP】

◇美女들의 「캉캉」춤 필리핀의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미스·영·인터내셔널 경연대회에 참가중인 한국의 김소형양(ⓐ에서 세번째)이 각국 미녀들과 캉캉춤을 추고있다。이대회결선은 오는26일 거행된다。【마닐라12日AP電送=聯合】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고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각종 CABINET책상, ●사무용 학생용 타자기,
●각종 종이 테이프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 532—0111, 259—5820(R)

KYOTO JAPANESE RESTAURANT
신장개업, 다양한 일본의 정통음식
뎀뿌라, 스시, 스끼야끼.
예약은 755—3010
영업시간 : 화~금 점심 12~2 : 30, 저녁 5~10 : 00
토~일 5~10 : 00(월요일 휴업)
주 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North of Eglington(오리올플라자내 무료 주차장)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863—9519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맥주, 파티에 남이서 원하는대로 마련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機動力 한국 오늘 爭霸戰 長身의 美國

無敗의 두팀실력 莫上莫下
對自由中國戰은 92—63으로樂勝
존즈盃쟁탈 女子농구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은 12일밤 自由中國 中華체육관서 진행된 제5회 존즈배쟁탈 국제 여자농구 대회 결승리그 5차전서 自由中國 청팀을 92—63으로 대파하고 6연승을 기록, 西獨을 60—30으로 격파하고 역시 6승을 올린 美國과 14일 하오9시40분 대회 패권을 놓고 격돌하게 되었다. 무패를 기록하고있는 한국과 美國은 실력이 막상막하로 평가되고 있는데 한국은 중거리슛과 기동력에서 앞서고 있으며 美國은 신장이 우세, 중거리슛과 신장의 싸움으로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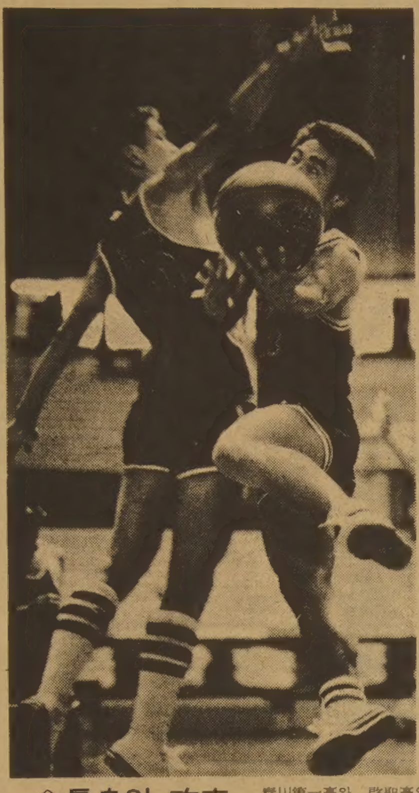
한국은 西獨 네덜란드등 장신들과의 싸움에서 신장의 열세로 리바운드에서 고전을면치못했는데 朴贊淑이 리바운드를 얼마만큼 잡아주느냐가 승부의 키·포인트이다. 朴贊淑은 상대방의 맨투맨 수비에 약한 편인데 金和順이 순발력을 이용, 朴을 착실히도와준다면 승산이 있다.

한국은 1만5천명의 관중이 홈팀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가운데 벌어진 自由中國청팀과의 5차전서 전반 朴贊淑의 골밑슛과 鄭美羅의외곽슛이 터져 48—28, 전반서 승부를 결정 지었다. 한국은 후반 체력과 경기의욕이 현저히 떨어진 自由中國에 2진멤버를 기용하는 여유를보이며 92—63으로 낙승했다.

◇결승리그 5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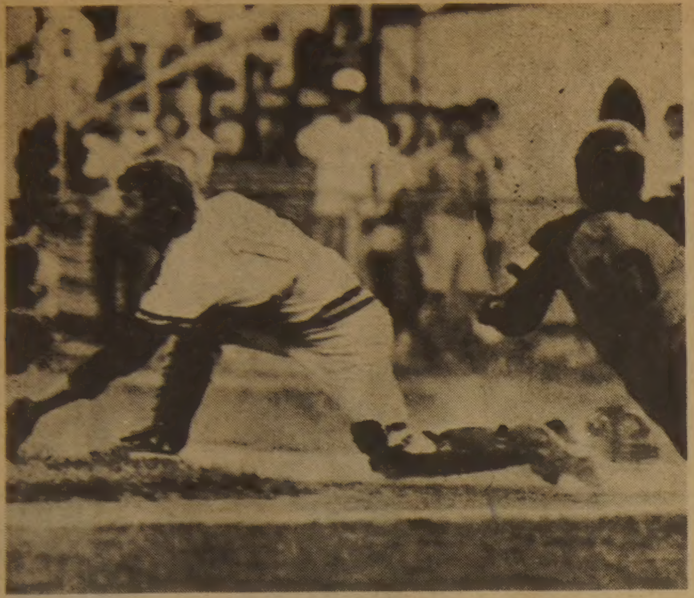
한국 92 (44—35, 48—28) 63 자유중국청팀
(6승) (3승2패)

미국 60 (34—19, 26—11) 30 서독
(6승) (1승4패)



◇長身의 攻守 春川第一高와 啓聖高의 접전。啓聖의 南東元⑥이 第一의 장신 金走河의 마크를 제치고 슛을 날리고있다。

LA同胞팀 종합우승
全美洲교포體育대회
13개市 선수7백81명 出戰
뉴욕2位·시카고3位、다음大會 뉴욕개최



◇한국청소년팀의 3루주자 呉千書가 뉴워크·오일러즈와의 경기서 뉴워크 포수가 볼을 기다리는 사이 홈에 슬라이딩, 득점하고있다. 【뉴워크12日AP聯=聯】

【로스앤젤레스支社】60만재미동포들의 단결을 다짐하는 제1회 전미주 한인교포체육대회가 13일 상오(이하 한국시간) LA 고교스타디움에서 이틀간에 걸친 열전을 마치고 폐막, 홈그라운드의 LA 한인팀이 3백60점으로 영예의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뉴욕팀이 78점으로 2위, 71점을 얻은 시카고가 3위를 차지했다.

「뭉치자, 다지자, 창조하자」는 슬로건 아래 12일 개막된 이번대회에는 LA市를 비롯 뉴욕, 시카고, 워싱턴, 필라델피아, 달라스,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가스,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볼티모어, 오린지카운티, 하와이 등 13개도시에서 7백81명의 지역대표선수들이 출전, 했으며 9개종목(축구 육상 태권도 수영 야구 테니스 승마 탁구 배구)의 경기를 벌였다.

제2회대회는 83년 뉴욕에서 열린다.

◇종합순위=①LA한인팀 3백60점②뉴욕 78③시카고 71④샌프란시스코 68⑤오린지카운티 46⑥샌디에이고 40⑦라스베이가스 21⑧워싱턴 15⑨볼티모어 11⑩필라델피아·하와이 이상6⑫달라스·포틀랜드 이상1

한국、베네수엘라完破
세계청소년野球 宣東烈投打서 맹활약
오늘 加와2次戰

【뉴워크(美오하이오州)=李鍾南특파원】한국청소년야구대표팀은 13일(이하 한국시간) 이곳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야구대회 3일째 경기에서 宣銅烈의 총알같은 강속구로 베네수엘라에 6—0으로 완봉승, 결승진출의 가장 큰 고비를 넘어섰다. 한국의 선발 宣銅烈은 이날 강타력의 베네수엘라를 맞아 9회까지 산발2안타, 13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으며, 공격에서도 2타수 2안타(2루타포함)2타점, 2득점, 2포볼의 맹위를 떨쳐 投打에서 모두 큰 활약을 했다.

이날경기장에 나타난 美프로야구 스카우터들은 宣의 호투에 감탄하며 『당장 2만5천달러 정도의 몸은 선수』라고 호평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등으로 재조정된 예선 A조에서 1승을기록하고있으며 결승 진출이 낙관된다.

한국은 이날 宣銅烈의 좋은 피칭으로 베네수엘라를 6회까지 무안타로 누르는 한편, 2회말 밀어내기로 선제1점, 4회말 1死2·3루에서 宣銅烈의 2타점내야안타와 裵起雄의 스퀴즈·번트, 曺良根의 좌전적시타로 대거 4점을 얻어 승리를굳혔다.

한국은 14일상오6시 캐나다와 2차전을 갖는다.

◇제3일 전적

▲A조

베네수엘라 000 000 000—0 (1승1패)
한국 010 400 01×—6 (1승)

네덜란드 6—0 스웨덴
(1승1패) (2패)

캐나다 3—1 뉴워크

▲B조

호주 3—2 자유중국
(1승1패) (1승1패)

미국 6—1 이탈리아
(2승) (1승1패)

엘살바도르 11—2 과테말라
(1승1패) (2패)

데이비스컵4強戰
來10월 美國—濠洲、아르헨—英國

【파리AFP=聯】美國과 濠洲、그리고 아르헨티나와 英國이 오는 10월 81년도 데이비스·컵준결승전을 벌이게됐다.

美國은 지난해 데이비스·컵우승팀 체코와의 준준결승전에서 힘들던 챔피언 존·매켄로가 체코의 신예 이반·렌들에게 충격적인 패배를당했으나 노장 복식조 스탠·스미스(34)—봅·루츠(33)가 이반·렌들—토마스·스미드조를 6—3、6—1、6—4로、지미·코너스가 이반·렌들을 7—5、6—4로 물리쳐 체코에 토틀 4—1로 승리했다.

濠洲는 비외른·보리가 빠진 스웨덴과의 준준결승에서 3—1로 승리, 10월 美國의 오리건州 포틀랜드에서 美國과 준결승전을 갖는다.

美洲卓球여행 ⑤
—全美오픈大會의 意味
儀式없이 갑작스레 開幕된 對陣表에 각국選手團 "대진順序엉망이다" 불평
9차례 듀스거듭한 韓·美경기에 視線집중

6월17일 아무런 의식없이 제51회 全美오픈탁구선수권 대회가 개막됐다. 개막일 아침에야 비로소 단체전 참가팀이 확정되었다. 부라부라 만들어진 대진표에 따라 A·B조의 예선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진순서가 엉망인데다 어떤팀은 같은팀과 2번경기를 갖고 또어떤팀끼리는 한번도 싸우지 않게돼 선수단마다 불평이만발했다。

캐나다의 임원들은『이게 美國식 대진인가、캐나다·오픈은 그렇지 않았다。』英국도 내년부터는 캐나다에 시니어팀을 보내달라』고美國의 대회운영을 나무랐다。심지어는 美國팀감독마저 주최측인 美國탁구협회에『이게 어린아이들의 유희냐。참가국대표들이모두 비웃는다』며 힐난했다。

東亞建設여자팀은 黃男淑、安海淑을 단·복식에 기용、여자단체전 예선 B조에서 캐나다、美國2팀、푸에르토리코를 모두 3—0으로 완파하고 3전전승의 수위로 준결승전에 진출했다。A조에서는 中共이 美國1팀과 베네수엘라를 각 3—0으로 연파하고결승토너먼트에 올라갔다。

第一合纖남자팀의 결승토너먼트진출은 수월치 않았다。金浣、金瑀澤、劉時興등 국가대표선수들과 呉炳萬、宋相鉉、李在勳등 고른 전력의 선수6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4단식1복식의 全美오픈 경기방식에는 오히려 개인기량이 뛰어난 2명의 선수를 가진팀이 훨씬 유리했다。第一合纖은 예선B조 1차전에서 이집트에 3—0으로패승。2차전은 지난해 이대회우승팀 美國、3차전은 강호 스웨덴과 대전토록되었다。

美國은 대표팀의 선수층이 얇아 세계선수권대회서는 I그룹에 끼지도 못했으나 현美國챔피언인 대니·시밀러와 주니어챔피언인 에릭·보간의 개인기와끈기는 놀라왔다。1차단식에서 金瑀澤이선선、시밀러에게13—21、21—18、21—14로 이겼으며 2차단식서도 金浣이 보간에게 15—21、21—19、21—9로 이겼다。그러나 기대를 모으며 코트에 들어간 金浣、劉時興조가 복식에서 시밀러—보간조와 19—21、21—11로 접전을 펼쳤다。복식제3세트는 치열한 공방전끝에 28—28까지 9차례나 듀스를 거듭、경기장내의 모든 시선이 韓美양국의 대결에 집중되었다。

앞으로 2점이면 예선의 최대난관인 美國을 젖힐수 있는 숨가쁜 고비였다。美國측의 허점을 노리며 강하게 먹인 劉時興의 마지막 드라이브 공격 2개가 『아!』하는 한국벤치의 탄성과 함께 연달아 빗나가고 말았다。복식 제3세트를 28—30이라는 스코어로 美國에 잃었다。

3차 단식서부터 한국이 거꾸로 美國에 쫓기기시작、金浣이 시밀러에게 24—26、19—21로、金瑀澤이 보간에게 14—21、18—21로 각각 패퇴、美國이 토틀 3—2로 역전승했다。

버스를 타고 오가는·지리한 이동시간때마다 선수들에게 합창을 시키며 재치있는 농담으로 선수들의 긴장과 피로를 씻어주던 第一合纖의 金忠勇감독도 이때만은『L A의 매직·마운틴에서 보트를 타고 폭포속에 처박혔을때의 기분』이라며 쓴맛을 다셨다。

第一合纖남자팀은 이제 강호 스웨덴과의 예선 종전에 결승토너먼트진출의 마지막 기대를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지난해 준우승팀의 예선전과로서는 낙심천만이었다。

세계최강 中共을 비롯、개인기량이뛰어난 스웨덴、美國、캐나다등의 참가로 대회경기수준자체가 지난해보다 격상된 탓이었다。

【文錫鍾기자】

◇西獨프로에 入國한 朴鍾遠 西獨 프로축구 카이저스라우테른팀에 새로입단한 朴鍾遠(앞줄오른쪽) 등 외국선수4명이 연습에앞서 포즈를취하고있다。 【카이저스라우테른AP電=聯】

金宇烈등 21명선발
韓日실업 野球대비

야구협회는 11일 韓日친선실업교환경기(10월)에 파견할 실업선발팀을 구성, 감독에 許正奎씨(포철) 코치에는 沈末龍(경리단) 金忠씨(상은) 등을 각각 선임했다。

◇선수단명단

▲감독=許正奎(포철)▲코치=沈末龍(경리단) 金忠(상은)▲투수=崔玉圭(농협) 金勇男(한국화) 黃泰煥(한전) 李光殷(성무) 權永浩(경리단) 盧相守(한일은)▲포수=車東烈(제일은) 李光玉(상은)▲내야수 金龍達(한전) 朴承昊(성무) 金仁植(롯데) 具永錫(상은) 丁震鎬(경리단) 金震根(한국화) 金容哲(한일은) 徐定煥(포철)▲외야수=金宇烈(제일은) 許奎沃(롯데) 馬京夏(경리단) 崔正雨(한전) 李鍾道(제일은)

李相鎬 5회KO승
日 이시도와競技서

【原州=聯】프로복싱 국내 주니어웰터급의 유망주 李相鎬는 12일하오 이곳 치악체육관서 벌어진 이시도·다다오(日本 라이트급4위)와의 경기에서 5회1분32초만에 KO승, 프로전향이래 16연승(13KO)의 전적을 기록했다。

U大會선수단 壯途
어제 부쿠레슈티로

오는19일 東歐공산국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막을 올리는 81년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학생경기대회)에 출전할 한국대표선수단이 張忠植단장인솔로 13일 KAL편으로 장도에 올랐다。

韓·美대학野球경기
雨天으로一部변경

제2회 韓美 대학야구선수권대회 일정이 12일의우천으로 일부변경됐다。대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하오6시반 나이터로 3·4·5차전을 치르고 17·18일에는 예정대로 하오3시 6·7차전을갖는다。

533 2361

東洲女商 2회전 進出
전국男女고교농구 申美玉숏터져 培聖女商제압
55—49

제1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남녀고교 농구대회가 남고16개팀, 여고 12개팀이 참가한가운데 12일 장충체육관에서 개막, 13일 이틀째 여고1회전경기서 釜山東洲女商은 경기종료6초를 남기고 申美玉의 숏으로 培聖女商의 추격을 50—49로 따돌리고승리、2회전에 진출했다。

한편 남고부1회전서 啓聖高는 吳圭儀、南東元의 활약으로 姜銀鎬이 분전한 春川第一高를 89—63으로 완파하고 2회전에 올랐다。

이날 東洲—培聖의 대전서 培聖은 센터 宋美蘭의 포스트·플레이로 선제리드를 잡았다。

東洲는 1년생 센터 朴鳳淑이 培聖의 宋美蘭을 철저히 마크하고 申美玉、林惠淑의 숏으로 추격했고 프레싱을 펴면서 鄭賢淑의 숏으로 24—24타이를 만든후 역전리드를 잡았다。

宋美蘭의 활약이 견제당한 培聖은 金美淑、洪性柱가 활약했지만 전반을 30—26으로 뒤졌다。

후반東洲는 朴鳳淑대신 어머니가 蘇聯系이며 在美동포인 제리·차을 기용했고 申美玉 林惠淑의 외곽숏이 호조를 보여 43—30으로 점차를 벌렸다。

忠南商·南星女高 2連霸
女中部선 誠庵이馬山第一 누르고
우수中高배구

【釜山=聯】南星女高(부산)와 忠南商高가 제16회 전국우수중고배구대회서 우승했다。

南星은 13일 九德체육관서벌어진 대회최종일 여고부결승전서 馬山第一女高를 3—2로、남고부서는 忠南商이 東萊高를 3—0으로 간단히 누르고 각각이겨 2連霸했다。여중부에서는 서울誠庵女中이지난해 우승팀인 馬山第一女中을 2—0으로 물리치고 첫우승을 차지했다。南星은 첫세트서 7—7、12—12의 접전을벌이다가 장신 金慶子의 블로킹과 金和美의 페인트공격을 성공시켜 15—12로 어렵게 이겼으나 제2세트서 수비의 난조를보여 15—2로 무너졌다。제3세트를 15—4로 이긴 南星은 제4세트서 15—10으로패해 세트스코어 2—2를 이루었으나 마지막세트서 비플레이를 살려 15—9로서 승리했다。

◇최종일전적

▲여고부결승
부산남성 3 (15—9 10—15 15—4 2—15 15—12) 2 마산제일

▲남고부
충남상고 3 (15—9 15—10 15—7) 0 동래고교

▲여중부
서울성암 2 (15—4 15—4) 0 마산제일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 장 석

☎ : 247—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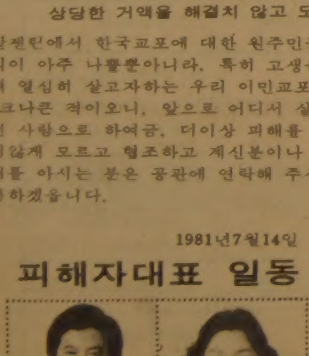
사기꾼 金東春을 찾습니다

①아르젠티나에서 약5년간 거주
②가족사항 : 본인 약40세, 부인 최금숙 약35세 아들 김자룡 7세
③사기행각 : 아르젠티나 중심가에서 옷가게를 개업하면서 약1년동안 많은 교포로부터 많은 사채와 물품, 자기앞 수표(원주민과의 거래)약50만불 이상의 상당한 거액을 해결치 않고 도망.

알젠틴에서 한국교포에 대한 원주민들의 인식이 아주 나쁠뿐아니라, 특히 고생을 하며 열심히 살고자하는 우리 이민교포들에게 크나큰 적이오니, 앞으로 어디서 살던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더이상 피해를 입지않게 모르고 협조하고 계신분이나 거처를 아시는 분은 공관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981년7월14일

피해자대표 일동



평화식품

카나다 시장에서 호평받는
한국인의 식품공장

생산품목
두부, 우동
편육, 떡쌀가루
콩나물, 콩우유
떡복이, 떡국가래

PYUNG HWA FOOD CO. INC.

☎ 534—0237 이시택, 구자선

CAROL'S JEWELERY & GIFTS

시내 MALL안에 있는 조그만 보석및 GIFT점입니다. 다이아몬드및 불로바·세이코 시계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무슨 종류의 보석(특히 다이아몬드)이든 최저가격으로 주문도 해 드립니다.

특히 시계, 보석수리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시계·보석 선물용 gift등 무슨 상담이든 환영하오며, 스폐샬 가격으로

교민을 위하여 봉사코저

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 상 길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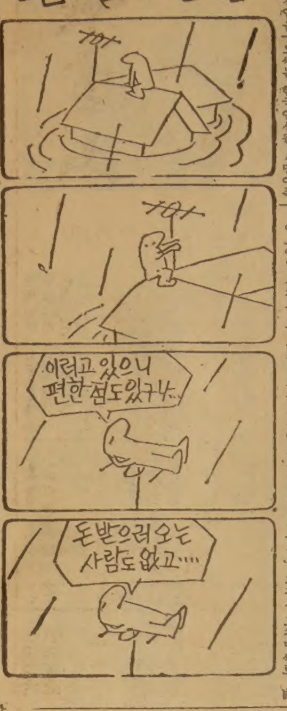
345 BLOOR ST. E.
BLOOR & SHERBOURN에서 약간 서쪽MALL안에
(GREENWIN SGUARE)

월~수 오전10시~오후7시
목~금 오전10~오후9시,
토 오전10시~오후6시

B) 967—3449, R) 429—1392

두꺼비

안의섭



日 油槽船마스트에 落雷…폭발 伊제노아港
한국인 船員5명 숨져

【제노아(이탈리아) 12日AP=聯】 32명의 한국인 선원이 승무원으로 일하고있는 일본유조선 하쿠유·마루(10만2천톤)가 12일 9시50분(한국시간) 이탈리아의 제노아항에서 원유하역작업을 마친직후 落雷를맞고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한국인선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고 제노아항당국이 이날 밝혔다.

일본인선장 아오야나·이사오씨는 한국인선원 4명이 폭발시 즉사했으며 다른1명은 병원에 옮겨진직후 사망했다고 말하고 이밖에 이탈리아 선원1명이 실종되고 이탈리아선원 7명과 유고선원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아오야나 선장은 또 벼락은 하쿠유·마루의 마스트들 중 하나에 맞았으며 落雷즉시 유조선탱크에 불이 붙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하쿠유·마루의 폭발은 이 배가 제노아항의 물테도 저유장에 원유하역작업을 끝낸 직후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격자들은 하쿠유·마루가 벼락에 맞은후 불과 10여초만에 폭발, 거대한 화염과 연기에 싸이면서 시뻘겋게 불에 탄 유조선조각들이 하늘 높이 날아 올랐으며 인근에 정박중인 선박들은 긴급대피 소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폭발이 일어나자 이 유조선에 타고있던 선원들은 대부분 바다에 뛰어든 후 구조되었으며 일부는 소방구조대에 의해 배위에서 구조된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선원중 부상자의 신원은 기관사 노천만씨로 밝혀졌는데 노씨는 양발목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하쿠유·마루의 진화작업은 약 4시간이 소요됐으며 불길이 다 잡힌후에도 오랜시간 검은연기를 토해냈다고 말했다. 하쿠유·마루는 알제리로부터 제노아항에 도착한지 몇시간 되지않아 변을 당했다. 한국인 사망자는 다음과 같다.

▲선원 김진철 ▲〃 박영수 ▲〃 박상곤 ▲〃 신금환

서울大生 3명에 1年~8월징역

서울형사지법 兪炫판사는 13일 朴書祥군(19·서울大경제학과2년)등 서울大생3명에대한 반공법위반사건선고공판에서 朴군에게 징역1년에 자격정지1년을 선고하고 奇勝군(20·정치과 3년) 申根秀군(20·경제과3년)등 2명에게는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朴군등은 지난해5월초 「자본론」등 공산주의 관계서적을 8백부가량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했으며 같은해 7월3일밤 11시께는 교내에서 불법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간판·윈도우 싸인·쇼-카드전문
●그래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상업디자인·비지네스및 개인명함 회사나 단체 마-크·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 쇄 부 : 도서(책자)·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헌

주간女性

나의 이력서

〈玄 信 圭〉 玄信圭 ⑧①

헬싱키의 南北遭遇

첫 南北遭遇였다. 그렇은 국제회의에 참석했지만 北韓이란 이름을 들어보지도 北韓사람을 본적도 없었는데 74년 핀란드의 헬싱키 IUSF(국제임학회연합회) 회의에 北韓대표의 얼굴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IUSF는 69년에 발족, 미 플로리다대학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우리나라도 가입했는데 그 두번째 회의가 74년8월 헬싱키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나는 한국 임학회장인 沈鍾燮박사, 任慶彬교수, 그리고 李晉成산림청조림국장과 함께 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머리를 치깎고 金日成배지를단 북한대표3명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물론 북한은 정식회원으로 가입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 업저버자격으로 참관했던 것이다. 그들이 임학관계 국제회의에 업저버로나마 참석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었다.

"그들은 주눅이 들어있었던듯 굳게 입을 봉하고있었다. 그러나 북한대표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관심이 쏠렸고 긴장도 되었다. 각자 맡은 일에 열성을 더해갈 밖에. 발휘 임직였고 그들에게 한국의 국제학술대회에서의 우위를 과시했다. 마침 首席대표도 3명이나 참석 [illegible]

北側 첫참석…우리研究실력 優位과시

했으나 정치적인 상황의 변동으로 정식대표의 예우를 받지 못했다. 이의도 해왔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학술회의에서도 국력이 작용한다니 비애를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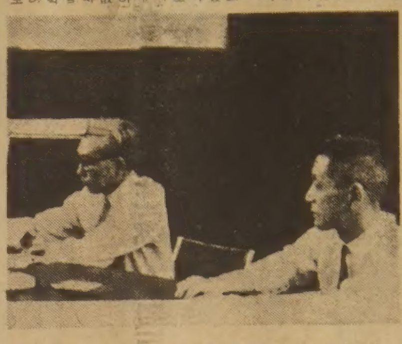
회의도중, 핀란드 임업시험장 유전부 책임자인 하그만박사는 내게 북한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그는 북한지역에 대한 나무의 수종조사를 희망했더니 특별히 초청을 해줘서 73년 平壤을 다녀왔노라 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북한 [illegible] 부터 [illegible] 너져 버렸다.

좋은 호텔에서 푸짐한 음식은 맛보았지만 나무는 가로수밖에 볼수없었다고한다. 금강산까지도 가볼 심산이었으나 안내원이 산은 커녕 가로수의 사진까지도 찍지 못하게 해서 채집은 하나도 한것이 없다고했다. 학자를 만나게 해달랬더니 육종학자가 1명있다는 말뿐 대면도 시켜주지 않더라했다. 그러니 그는 2주동안의 「무위도식을위한 특별초대」를 받은 셈이었다.

그의 불만스런 표정이 안스럽기도하고 은근히 한국을 자랑하고 싶은 심정이 되어서 나는 즉석에서 『북한에있는 나무는 한국에도 모두 있으니 한국에 오면 어떠냐』 했더니 한국에서 못보고 못얻은것 다 해주겠노라고 재의했다.

하그만박사는 76년 일행 5명과 함께 한국에왔고 李昌福교수의 안내로 제주도에서 휴전선까지 뒤지며 조사 채집해갔다. 솔직한 보따리를 풀고 돌아가던 그의 얼굴엔 북한의 꽃까지 해낸 포만감으로 넘쳐 있었다. 그도 자유국가와 공산국가의 실체를 체감했으리라 믿어진다.

IUSF회의에 뒤이어 장소를바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IUFRO의 집단유전大代결론과



◇66년8월 東京에서 열린 11차 태평양학술회의에서 筆者(右)는 임업분과회의 의장을 맡아회의를 진행했다.

만찬회서 演說잘했으나 댄스못춰 창피당해

회의에서는 회의를 주재하는 영예가 내게 주어졌다. 회의가 끝나는 밤 왕립임과대학장 벤손박사가 주최한 만찬회에서는 주최측의 환영사에 이어 답사를 하라는 청이 들어왔다. 얼떨결에도 유머가 섞인 답사가 되었던듯 박수갈채를 받았다.

여기까지 내가 해낸 역할은 화려한 스타의 그것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댄스파티가 시작되면서 부터 화려한 무대는 일순간 곤혹과 창피의 무대로 돌변했다. 학장부인으로부터 춤상대가 되어달라는 프러포즈를 받은 것이다. 예의상 내가 먼저 청했어야 했는데도 멍하게 앉아있다가 되려 청을 받았다. 그같은 결례를 사과할 틈도없이 또 나는 곤혹스러워졌다. 댄스를 할줄 모르기때문이다.

발이라도 밟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위해서는 미리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얻는 편이 마음에 편할것이었다. 엉거주춤 발이 떨어지지않아 『미안하지만 나는 한국총각에 모르니 용서해 달란』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그쪽에선 손을 잡고 서있기만 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좌중의 뭇시선을 무릅쓰고 않은채 버티었다.

그날 그 사건이후 댄스를 꼭 배워둬야 겠다고 결심했다. 후진들에게도 그같은 해프닝에 대비해서 배워둘것을 권한다. 하나 댄스란 어디나같은 사람에게 어울리기라도한 번한가. 나는 끝내 배우지 못했고 한발짝도 옮기지 못하는 형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있다.

나의 이력서

〈玄 信 圭〉 [연 착] 玄信圭 ⑦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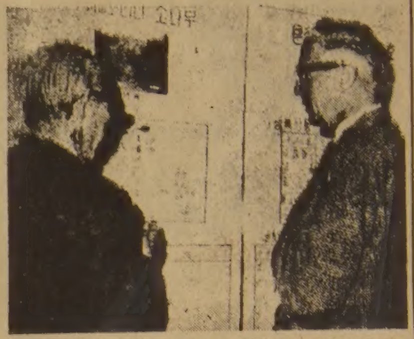
印度의 수수께끼

인도는 동양의 수수께끼의 나라라는 인상을 떨쳐버릴수가 없었다. 판단의 迷路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당시 5억이 넘는다는 인구중에서 굶어 쓰러지는 거지의 인구가 부지기수인데도 힐끗보호를 받는 소떼가 즐비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내 서툰 상식으로는 출처럼 이해되지 않는 양면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보였다.

그 한편으로 인도의 문화는 이제 [illegible]

가난하지만 研究수준은 世界的

[illegible]



◇노벨상수상자로 멕시코의 맥류연구소장인 노먼·볼로그박사가 74년 5월 水原 임목육종연구소를 방문, 筆者가 소나무와 은수원사시의 육종과정과 생육상황을 비교해서 설명해줬다.

外國서 學位얻어 모두가 歸國…祖國發展 헌신

[illegible]

流星의 賦

[연 착]

〈128〉

李炳注 作
李友範 畫

亡兆의 日月 ⑭

[illegible]

流星의 賦

〈130〉

李炳注 作
李友範 畫

亡兆의 日月 ⑯

[illegible]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오전10시30분~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가나안교회	이 정 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 병 한	수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 1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 사 철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748-8224
대 한 교 회	강 근 환	주일오후 1 : 30	3819 Bloor St.W.	741-5411
대 한 수 도 원	조 권 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 순 관	대 예 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 : 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 주 성	주일새벽 6 : 30 주일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8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 희 선	주 일 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 화 선 교 439-638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 : 00 주일저녁예배7 : 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6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 환 진	주일오후 2 : 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 : 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894
반 석 교 회	양 세 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241-2544
벧 엘 교 회	최 상 봉	수요저녁 7 : 00 주 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 경 진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824
새예루살렘교회	김 승 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925-8525
새한장로교회	김 상 호	주일오후 2 : 00 토요오전 7 : 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 옥 희 전 도 사	주일오후 2 : 00 수요예배 7 : 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 교 교 회	안 상 엽	주일 1 : 00 저녁 7 : 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 도 교 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 필 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회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성 산 교 회	계 화 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 이 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3-4813 745-3884
에덴침례교회	정 태 진	주일오후 2 : 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 락 교 회	김 재 관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er Dr. at Pape-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 세 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 창 환	수요저녁 7 : 30 일요오후 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자유감리교회	여 용 순	오전11시	2385 Warden Ave.	444-88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 용 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생명의전화 755-9766 755-1526
제7일안식일	박 형 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 관 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8 : 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 주 교 회	고 종 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 례 교 회	홍 신 용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804
충 현 교 회	박 경 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 인 교 회	임 인 환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 상 대	주일오후 1 : 00 (영 어 예 배) 주일오후 2 : 00 (대 예 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 인 교 회	유 재 신	주일오전11 : 00 낮12 : 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 희 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1183 Davenport Rd.	535-6864 아들의양식 532-2121
해 밀 턴 연 합	김 낙 종	성경공부 2 : 30 예 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 漫畫

"청구서, 청구서, 청구서!"

"막막하구나! 청구서가 너무 많아!"

"어디서 돈을 끌어다 이걸 갚지?"

"나야 빈털터리니 마스터·차지를 다이너스·카드로 갚아야겠군!"

※MASTER CHARGE와 DINERS CARD는 모두 미국 크레디트카드의 일종임.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張吉山 (1610)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第一章 彌逆勒謀 (70)

길산은 혼수상태에 빠진 안무당의 머리맡을 지키고 혼자 앉아 있었다. 안무당은 미동도 않고 잔 숨결만 내쉬고 있을뿐이었다. 길산이 들어서자 계화와 백현이는 일찌감치 자리를 떴고, 원향이가 한번 들여다보고 갔다. 길산은 양모가 어제 운명할지 몰라서 아예 곁에 자리를 깔고 함께 지샐 참이었다. 밤이 제법 깊었는지 먼산과 앞 골짜기로 서로 화답하는 족박새의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득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장두령, 여기계신가?』

하는데 도무지 낯선 목소리라 누군지 짐작 수가 없었다. 길산은 방문을 밖으로 빼끔이 밀어 보았다.

『누군가…』

어슴프레한 가운데 갓 쓴 머리가 보였다. 키 크고 마른 사람이었다.

『날세……』

『아니, 유학 어른 아니시오』

길산은 밖으로 뛰쳐 나갔다. 강원도의 설유징이 수염을 날리며 서있었다. 길산은 유징의 내미는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객방 앞에 서있는 송낙쓴 중에 눈길이 멎었다. 설유징이 왔다면 그게 누구겠는가.

『저건, 갑송이……아닙니까?』

『아닐세』

설유징은 웃었다.

『둘이니 여기 있다더군. 모친 병환이 위중하시다지? 저쪽으루 가서 어디 얼굴이나 보세』

설유징이 앞을 서고 길산은 따르는데 툇마루에 바랑을 벗어놓고 서있던 중이 송낙을 뒤로 젖히면서 앞으로 마주 다가왔다.

『길산아』

『가, 갑송이 아니냐』

『고성서 헤어지고 몇해 만입니까』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자, 들어가십시다』

길산은 돌아서다말고 저편 설유징을 젖히고 나서는

『허허 대성법주스님일세』

길산에게 유징은 말해 주었다.

대성법주는 우람한 몸집을 우뚝 세웠고 길산이도 주춤 섰다. 역시 설유징의 말이 그의 뒷통수를 후려쳤던 까닭이었다. 송솔의 가운데 한팔 거리가 벌어져 있었다. 그 거리를 길산이 먼저 좁혔다.

『이 자식아』

누가 먼저였는지모르게 대성법주와 길산은 서로 팔을 벌려 와락 껴안았다. 억센팔뚝들은 강철과 바위 같았다. 그들은 함께 그 팔을풀었다.

『어디 얼굴 좀 보자』

대성법주가 텁석부리의 얼굴을 들이대며 길산을 살폈다.

『어서들 들어오시오. 이러다가 나는 정말 객주집 중노미가 될판이로군. 정신이 없단 말야』

옥여가 방에서 나오며 그들을 맞았다. 여확이는 목침을 치우고 일어나 앉았고 그들도 들어가 앉았다. 인사들이 오고 갔다. 불빛에 서로 바라보니 초로에 접어든 설유징의 머리와 수염은 서리가 내린듯이 희끗희끗 하였고 선비답지않게 그을은 얼굴에는 주름살이 전보다 더욱 깊게 패인듯 보였다.

『많이 늙으셨읍니다』

길산은먼저 설유징에게던졌고, 설유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는일 없이 그럭구럭 자넨 그대와 다름없이 범갈네그려』

『산 정기 탓이지요』

『이놈아, 내게두 말 좀 시켜봐라』

대성법주가 길산을 툭 건드리며 말하였다.

"SOS"…헬機急派

陸軍·韓美공군 한마을住民 전원구조

집중폭우로 강물이 범람, 고립되었던 한마을 주민 2백2명이 12일하오 긴급출동한 육군과 韓·美공군헬機 9대에 의해 구조되었다。(사진)

육군은 이날 충남禮山郡新岩面中禮里마을이 침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항공학교 소속 헬機3대(조종사 申承彦대령외5명)를 현지에 출동시켜 급류에 휘말려 익사직전에 있던 주민 김영환씨(22)와 최대의씨(37)를 극적으로 구조하고 다른 주민 1백명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한편 공군도 이날하오 구조요청을 받고 中禮里마을에 구조비행부대소속 헬機3대(조종사徐孝昌중령외5명)를 긴급출동시켜 지붕위에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던 양옥조씨(57)등 주민98명을 인근 조림국민학교로 대피시켰다。

滯拂사장 飮毒자살

11일하오 2시께 부산동광실업대표 金南奎씨(44·釜山鎭區 伽倻3洞289의7)가 극약을 먹고 신음중인것을 이회사공원 李진환씨(30)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李씨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부산北區 毛羅洞에서 섬유류 제조업체인 동광실업을 운영해온 金씨는 사업실패로 지난해11월부터 1백여명의 종업원급료및 공장임대료 1억원을 지불못한것을 비관해오다 지난10일상오 9시께돈을 구하러 나갔으나 뜻대로 되지않자 이날 하오2시께회사내 자기방으로 들어가극약을 먹었다는 것。【釜山=聯合】

法廷탈주범등公判 公訴사실거의是認

李相勳등 법정탈주범 4명과 이들의 탈출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尹錫子피고인(22)등 5명에 대한 공판이 13일상오11시 범인들이 탈주극을 벌였던 서울지법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朴俊備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도주경위와 칼을 만든 경위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도주당시 탈취한 서울2바7814호 브리사택시(운전사 柳英桓·45)에서 현금1만7천원을 가져간 일은 없었다고 이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소양강댐 입구 마을住民 연어橫財

수없이 떨어져 1m 넘는 超大型도

표주박

○…강원도지방에 내린폭우로 만수위가 된 소양강 다목적댐이 12일 수문을열어 방류하자 댐속에서 자라던 수많은 연어들이 1백80여m나되는 댐수문 밑수로에 떨어져죽어 댐입구마을(강원도 春城郡新北面泉田5里) 주민들이 때아닌 횡재。

○…이마을 池詳雨씨(58)부부는 이날하오7시께 수문밑에서 상당히 떨어진 수심1m 수로옆에서 머리부분이 떨어져나간 길이 1m 43㎝, 무게 50㎏이나되는 초대형 연어 1마리(사진)를 건져냈고 이보다 50m아래쪽 수로하류에서 金京浩씨(22·新北面근무민방위대원)도 1m 20㎝크기의죽은연어를건져냈다。

○…이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주민들은 손전등을갖고 나와 밤늦도록 수로가에서죽은 연어건져내기 작업을해 10여마리의 연어를찾아 내기도 했다。【春川=聯合】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25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달러
☎ : 532-3637 미스타 계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여름철 낚시미끼용 미모사, 지렁이 거머리등 세일.
LIGHTS밧테리
(2 DZ 지렁이를 사면, 1 DZ지렁이 Free)
630 QUEEN ST. E.
☎ : 463-4997

입주하셔서 베이비 씨터 하실분 구함
☎ : 763-7450 미세스 김

남녀 초저녁 청소하실분
☎ : 977-1110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학생 헬퍼 구함
☎ : 267-4770

도나스 샵에서 주중이나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카운터 헬퍼
☎ : 284-9325 스카브로지역

집안일 돌보실 독신녀 원함
ST. CLAIR & AVENUE RD. 에 위치
아파트+봉급 줌. 부엌일 없고 영어 필요없음.
CALL ☎ : 481-1355

일본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CALL MANAGER(오후3시~6시 연락)
☎ : 977-9519
MASA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재봉사 구함 (남·여)
• 약간명 • 유경험자 • 좋은 대우
•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매매및 양도

백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스토아 급매 :
주매상 4천8백불, 권리금 3만3천
☎ : 423-9899

그로서리 스토어 급매 : (코너스토어)
주매상 1만2천이상, 가격19만 달러
161 WITHROW AVE. (AT LOGAN) 토론토

포터블) 세탁기 2년
엑설런트 콘디숀 드라이어 6개월사용) 497-9180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빌딩과 비즈네스 매매
다운타운 지역
☎ : 368-5980, 633-0529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이주관계상
매매코자 함, 2 베드룸 달려 있음
☎ : 259-8139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 781-7080

성업중인 BAKERY 매매
TOTAL PRICE $130,000 7만달러 다운페이 CASH원함
1603 CLARKSON RD. MISSI. (오후 내방) 7시 까지 미스타 김

FIRE PIT햄버거 식당
주매상 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렌트 천7백불 현찰13만불 요함. 순이익8천불
☎ : 1-705-748-9722 피터보로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고급 BEDROOM SET급매 :
경대, 옷장, 2 NIGHT테블(QUEEN SIZE) 침대.
G. E. 냉장고, 커텐, 전축등 급매
☎ : 769-4366(오후5시이후)

CONVENIANCE STORE IN BUSY PLAZA
(ST. CLAIR E. X 버치마운트)
ASKING $69,000, 리스8년6개월, 주매상 6,500이상
HELLENIC REALTY
☎ : 766-2020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 몬트리올 100% 영어지역
BEER, WINE, CIDER, 유럽피안, 캐네디안 그로서리 취급 주매상 $3700, 주6½일 OPEN, 렌트 $375, 12년(라스+옵션), ASKING $29500+스탁
연락처 : 1-514-484-2071(몬트리올)
530-1012(토론토)

FISH & CHIPS스토아 매매
오랫동안 잘 경영해온 비즈네스 매매코자 합니다
(가게+현대형 아파트)
모개지가 좋고 비지네스 시작하자 곧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읍니다. 파는 사람이 새로운 경영자를 위해 도움을 줄것입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 : 751-7333
GOHEEN REALTY LTD., REALTOR

식 당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꽃꽂이, 생일,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6-2437 (코리아하우스 뒤)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6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구)
☎ : (B) 661-560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 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439-6277 박
• 카펫 • 소파 • 체어 • 타일 • 하드우드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토리등, 왁스)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S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Tel. 746-2120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TECH PHOTO LAB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때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엄태훈군과 공동수석 여학생

전교수석·모범 2관왕

중학문 나서는 엄태훈군

토론토에서 벡커상을 경영하는 엄정욱씨의 장남태훈군(14·Greg Um)은 지난 24일 미시사가의 세인트·토마스·모어스쿨 8학년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태훈군은 또 모범 기독교학생상(Christian Spirit Award)을 탔다.

기독교학생상은 전교생이 무기명투표로 선정하는 것이다. 관례에 따라 여학생 1명과 함께 전교수석상을 받은 태훈군의 이름은 동판에 새겨져 학교에 영구 전시된다.

영예의 2개상을 탄 태훈군은 공부도 뛰어나지만학교 활동에도 적극, 교내농구팀 주장, 배구선수, 교내신문 편집장, 슬라이드 제작부장등을 지냈다.

〈건강생활 시리즈〉

건강의 비결 ④

돈밀약국 이 요 한

4. 술은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가?

알콜의 사용은 인류역사와 같이 시작됐다. 한때는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의약용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보통 건강한 사람이 알콜을 간에서 산화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체중, 즉 간의 부피에 비례하는데, 1시간에 순수알콜 10cc를 해독할 수 있으니까 맥주 1병을 마신다면 1시간30분에 다 제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알콜산업은 담배 산업보다도 더 큰 사업으로 연간 국민이 소비하는 액수는①우리 자신의 건강관리비, ②교육비 ③교회에 내는 헌금 3자를 합한 액수보다도 많다니 좀 생각해볼 문제이다.

아직도 알콜은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로 사용한다. 술은 담배와 달라서 적당량을 마셨을 때 건강에 해로운 점을 찾기 어려우나 자동차사고의 원인이 되고, 각종사고의 원인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북미에서 음주후 교통사고로 연간 3만명이 죽는다. 각종 살인범의 반수가 음주후 발생하며, 자살의 3분의 1이 음주후 역시일어난다니 알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하겠다.

캐나다는 혈액내에 알콜성분이 80mg% 이상일 경우 음주후 자동차운전으로 말썽이 되지만, 이는 너무엄격한 법규제이다. 많은 경우 80mg% 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mg% 이하는 운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50~150mg%의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150mg% 이상의 경우에는 알콜이 운전에 영향을 준다.

80mg%로 캐나다가 정해논 이유는 아마도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5. 심장마비(HEART ATTACK)는 방지할 수 있나?

20세기 이전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던 병이었지만 1940년 이후 "심장마비"는우리인간의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No. 1 Killer)로 되었다. 3사람중 2명은 심장마비가 아니면 "뇌일혈"로 죽는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은 100명중 40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장마비로 죽을 확율은 40%가 된다. 이중에서 4분의 1은 65세 이전에 발생한다고 한다.

왜 이렇게 심장마비가 급격히 가장 무서운 병으로 됐는가? 전문가들은 흡연의 증가와 동물성 지방의 급격한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장이란 몸의 어느 부문 보다도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며, 각자의 주먹만한 크기의 근육덩어리이다. 심장은 1초에 약 1번 펌프(pump) 작용(수축과 확장)을 해서 1분에 72번 펌프작용을 한다. 이 운동은 쉬지 않고 잠잘 때도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10만번이나뛴다.

신체의 어느 기관인들 그렇게 힘들여 일하겠는가? 우리가 손을 쥐었다 폈다 한다고 가정할 적에 얼마나 계속할 수 있겠는가?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혈관의 총 길이는 7만마일이나 되며, 피의 양은 약6리터 정도이고, 15초마다 각 조직세포는 심장(염통)의 펌프작용으로 새로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으며 탄산개스와 폐물이 운반된다. 정말 최고급 서비스이다.

심장마비의 중요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다. 그 이외에도 흡연·고혈압·유전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나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잘 모른다. 다만 혈액내에 콜레스트롤(Cholestrol)이 많은 사람일수록 심장마비가 많다는 것이다. 이 콜레스트롤은 사람의 몸안에서도 만들어내지만 혈액내의 콜레스트롤의 양은 우리가 섭취하는 동물성 지방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 콜레스트롤은동물성 지방의 한 성분으로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으면 혈액내에 콜레스트롤양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콜레스트롤은 혈액내에 있는 다른 성분들과 같이 혈관안 벽에 붙어서 혈관을 가늘게 만들며, 더나아가서 막히게 한다. 즉 동맥은 경화(굳어짐)된다.

혈관이 가늘어져 피의순환이 잘 안되어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심장조직은 마비(죽음)되는 것이다. 심장은 각조직에 펌프작용으로 산소를 공급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크므로 심장 자체의 산소의 소비량은 상당하다.

심장마비는 아무런 예고없이 발생한다.

심장조직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조직이 죽어가므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심장마비의 증세란,가슴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또는 강한 통증이 오는데,주로 식은 땀을 흘리게 되고, 숨은 가빠지게 된다. 일단 조직이 상하면 재생되지 않으므로 지체 말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 빨리 치료를 받으면 85%는 살아날 수 있다. 심장마비 환자의 반수 이상이 병원에 오기도 전에 죽는다는 것은 빨리 행동하지 못한 원인에 있다.

우리 혈액내의 콜레스트롤 양은 약200mg% 정도이다. 미국의 심장협회는 심장마비를 방지하려면 담배를 끊고, 혈압을 조절해야하며, 콜레스트롤, 즉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고혈압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생각해 보자. 고혈압이란 혈압이 140/90이상을 말하며, 고혈압을 가진 사람이 아주 흔해서 4명중 1명이 고혈압 환자이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고 있는 수가 많다. 고혈압의 대부분은 원인불명으로 근본치료가 안되나, 체중의 조절과 소금의 섭취 제한, 아니면 약품으로 일평생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혈액내 콜로스트롤의 양은 우리가 섭취하는 동물성 지방(기름)에 많이 들어있으니, 우리가 좋아하는 쇠소기, 또는 돼지고기, 양고기등을 적게먹어야 하며 그밖에도 우유지방, 달걀 노른자, 간, 콩팥, 아이스크림, 버터, 지방이 많은 치스등의 섭취는 제한해야 한다. 달걀을 일주일에 2개이상 먹지 말라는 이유도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트롤 때문이다. 대신 마가린으로 동물성 기름 대신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고, 쇠고기 대신 닭고기, 야채, 과일, 콩류등을 먹으라는 말이다. 이 식품들은 콜레스트롤 양이 가장 적게 들어있으며, 영양가치는 아주 좋다.

만약 체중을 조절해야 할 경우라면 야채나 과일을 제외하고는 이 식품 역시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이 음식들은 지중해연안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심장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많은 사람이 쇠고기가 지방질보다 단백질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와 반대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실로인 스테이크(Sirloin Steak)의 경우 다만 28%가 단백질이고, 72%는 지방질이라는 것이다.

동물성 지방에 들어있는 포화지방(Saturated fat)은 보통온도에서 고체인데, 이는 심장마비나 동맥경화증·고혈압의 원인이 되니 불포화지방(Polyunsaturated far=상온에서 액체), 즉 식물성 기름(옥수수 기름, 콩기름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마가린(Magarine)을 살 때는 불포화지방의 양이 가장 많고, 포화지방의 양이 가장 적은 것으로 사는 것이 좋다.

혈액내에 콜레스트롤(지방질)의 양을 줄이는 약품이 나와 있지만 약품에 의한 방법보다 음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더좋다. (계속)

여자 전투조종사 탄생

김복순양, 소위로 임관

(서울11일=연합) 한국 최초의 여자 전투조종사가 탄생했다.

김복순(27) 공군소위는 11일 조종간부후보생임관식에서 졸업장과 함께 임관됐다.

78년8월 서울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양은 2년간 비행기 조종훈련, 신체단련등 남자에게도 어려운코스를 무사히 마쳤다.

이양은 한국의 여류비행사이며 한국비행협회 부회장인 김경오씨를 만난 후 조종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용의자 체포

모델 피살

모델살인사건 용의자가 체포됐다.

토론토 경찰은 기계정비공 랄프·파우어(28)를 모델 셰릴·가드너양의 살인혐의와(본지 7월9일자 참조)수지·가우드렐양의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파우어는 벨·캐나다 수리공으로 가장, 가드너양의 아파트에 침입했다.

가드너양과 가우드렐양은 망치로 머리를 맞았고, 가드너양은 강간당한 흔적이 있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토론토무역관 10주년

수출량 24배 증가에 공헌

대한무역진흥공사 토론토무역관(Korea Trade Centre)이 올해로 설치 10주년을 맞아, 지난 30일 열돌 자축리셉션을 가졌다.

①한·카 교역증진, ②무역거래 알선, ③상품조사·산업정보·자원및 투자유치(대 한국)·대 캐나다 투자관계등의 조사업무, ④홍보·세미나등을 수행하고 있는 이 무역관은 71년 7월1일 설립됐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67년 4월1일 몬트리얼에 첫 무역관이 생겼으며, 2년후인 79년4월1일 뱅쿠버무역관이 설립됐으므로 토론토무역관은 3번째의 무역관이었다.

초대관장은 이일우씨(71년7월1일~75년8월31일), 2대가 김복문씨(75년9월1일~79년3월31일)이며, 조성호씨(79년4월1일~현재)는 제3대 관장으로 2년4개월째 복무하고 있다.

◇조성호 관장

토론토무역관은 조관장과 임한빈 과장의 2명이본사 소속이며 현지채용 3명등 5명의 직원을 가졌다. 초대 이관장은 은퇴했다. 토론토무역관은 캐나다소재 3개 무역관중 가장 비중이 큰 곳이다. 캐나다와 한국과의 무역중 절반이상이 토론토지역과 거래되기 때문이다.

설립10주년 리셉션에서 조관장이 보리핑한 바에따르면 한·카교역관계는 대략 아래와 같다.

①한·카 교역 실적

한국의 대 캐나다 교역은 71년도 총교역량 $39백만에서 10년후인 79년도에는 18배인 $714 백만으로 증가, 대카수출은 24배($16백만→$387백만), 대카수입 14배($23백만→326백만)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수출품목은 의류·전자제품·신발류·철강제품·합성수지·가방류·양송이통조림·합판·금속제양식기·가죽제품·완구및인형·어망과 로프·타이어및튜브·기계류·합성직물이다.

반면 한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주요품목은 석탄·펄프·알미늄·비료·핵발전용 터빈·원비·동·유황·통신장비·유지·합성고무등으로 주로 공업용원료들이다.

②81년도 한국의 수출현황

금년5월, 한국의 총수출은 미화 8,047백만 달러로 80년 동기 대비(對比)23.5%의 증가를 보였다.

5월중 대 캐나다 수출은 US$187,259천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1.6%가 늘었다.

81년도 캐나다의 국별 수입현황을 보면 미국이 첫손 꼽히는 C$48,181백만이며 다음이 일본($2,792백만), 세째가 영국($1,968백만), 4위 홍콩($574백만), 5위 대만($557백만), 한국이 6위로 $414백만을 나타냈으며 7위 중공($155백만), 8위는 싱가폴($149백만)의 순위이다.

한편 캐나다의 81년도 주요국별 수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미 국	C$46,659백만
일 본	4,345 〃
영 국	3,182 〃
서 독	1,632 〃
중 공	865 〃
한 국	432 〃
대 만	250 〃
홍 콩	186 〃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초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 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중화요리·화식·캐네디안식
거구장

거구장

※환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대소연화

영 업 시 간 : 아침11시부터 밤2시까지. 연중무휴

가수와밴드 : 목, 금 토, 일(8시30분부터 밤2시)

가 수 : 신 현 희

특 별 메 뉴

개스불로 굽는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중화요리·케네디안식
요리전문
2백대 수용무료파킹장

5 BETHRIDGE RD. ETOBICOKE
KIPLING×HWY 401서 1 블럭 북쪽 첫신호등서 좌회전

☎ : 742-1618 곽정렬·김선남